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와 하나님께 대면하여 드리는 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서로 기도하며 교제하는 교회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시라

히브리서 10장 25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3월12일 (토) 제 1865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팬데믹 이전회복 정체...그러나 희망은 있다!

라이프웨이, 미국교회 사역재개와 대면예배 성장 현황 설문결과 보도

2021년 초와 비교하면 더 많은 미국 교회가 직접 모이고 더 많은 교인들이 교회당을 채우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최근 몇 달 동안 정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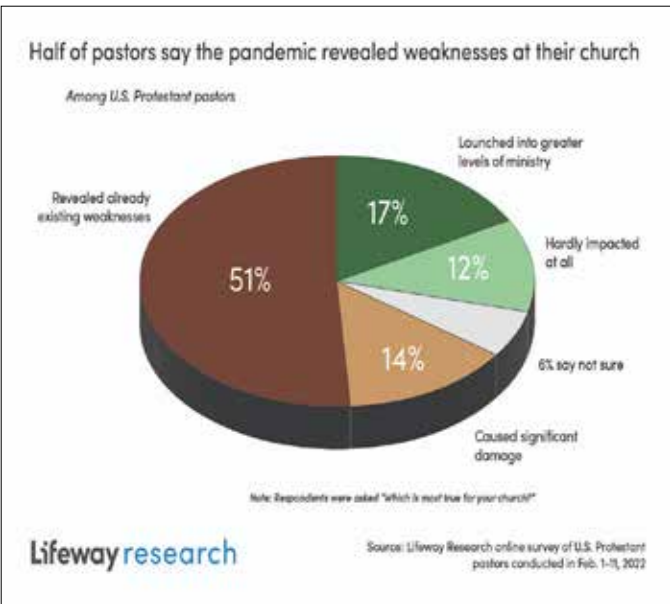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COVID-19의 새로운 변종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의 97%는 2022년 1월에 직접 만났고, 3%는 대면 서비스를 위해 모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는 2021년 8월 동 리서치 연구와는 통계적으로

로 변화가 없었지만 98%의 교회가 물리적으로 모였다. 동 리서치의 스콧 맥코넬(Scott McConnell)은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위해 직접 만날 수 있지만 일부 교회는 문을 다시 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교회가 모든 중요한 사역을 재개하고 사람들이 직접 참여, 대면예배를 재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Churches Still Recovering From Pandemic Losses).

미국 개신교 목회자 5명 중 1명(22%)은 자신의 교회가 2020년 1월 출석률에 가깝다고 말했으며, 10%는 전염병 이전 수준의 90%에서 100%에 이르렀고, 12%는 출석률이 현재 이전보다 높다고 말했다. 같은 비율의 목회자(22%)가 2021년 8월에 군중이 팬데믹 이전 출석의 최소 90%에 도달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2021년 1월에는 이러한 수준의 교회가 8%에 불과했다.

교회 10곳 중 8곳 이상이 전염병 이전의 절반 이상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평균적인 미국 개신교 교회의 출석률은 COVID-19 이전의 74%로, 그러나 팬데믹 이전의 교인 4분의 1이 여전히 대면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맥코넬은 "대면예배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이후 평균 출석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사람들이 아프고, 격리가 필요하거나, 고위험군이 되는 COVID의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돌아오지 않기로 선택한 건강한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COVID-19 이전에 출석원인이 50명 미만이었다는 가장 작은



교회는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소규모 교회의 3분의 1 이상(37%)은 출석률이 2020년 1월의 90% 이상이라고 보고했으며, 여기에는 18%가 팬데믹 기간 동안 숫자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환

대부분의 교회는 전염병이 한창일 때 어느 정도의 온라인 비디오서비스로 전환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참여, 즉 대면예배를 요청하고

있다. 2022년 1월, 미국 개신교 목회자 10명 중 9명(94%)이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를 생중계한 84%와 나중에 설교 동영상 게시한 10%를 포함해 교회에서 특정 유형의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대우행 이전에 동 리서치는 교회 5곳 중 2곳이 예배를 생중계하거나 나중에 온라인에 설교를 게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염병이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교회가 라이브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했다. 2020년 3월에 목회자 3명 중 약 2명(65%)이 예배를 생중계했으

며, 4분의 1 이상(27%)이 나중에 온라인에 설교를 게시했다고 말했다.

2021년 동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 비디오를 사용하는 교회가 더 많아지면서 미국인의 45%가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교회 예배를 시청했다고 답했으며 15%는 평소에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모든 교회가 다시 대면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은 일부 온라인 시청자가 실제 참여로 전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목회자 5명 중 3명(60%)은 온라인 예배를 재개하지만 공적 예배에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자를 권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맥코넬은 "라이브스트리밍은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회원들이 전염병 동안 주일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고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다른 신도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는 감히 교인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편으로 계속)

사 고

'히스핑거' 성경필사본 "요한복음" 출간

본지 자매 출판사 '히스핑거'가 출판한 성경필사본 두 번째 책 "요한복음"이 출간됐다.



지난 연말 출간된 첫 번째 책 "잠언"은 호평 가운데 꾸준히 사랑 받고 있으며 이번에 출판된 "요한복음"도 독자들의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잠언"은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책으로 전도용으로 권할 만하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중 하나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많이 기록했으며 교리적으로 풍성하다. 주요 주제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지닌 신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영생, 성신, 거듭남의 필요성,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성, 구주를 믿는 것 등을 강조했다.

히스핑거는 앞으로 계속 성경을 권별로 한 권씩 발행할 예정이다. 책은 권당 10달러. 단체 주문 시에는 해당교회(단체)의 이름을 걸표지에 인쇄할 수 있다.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스핑거'는 격조 높은 디자인과 고질로 목회자들의 설교집 및 저서 등을 출판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번째 책으로 "3분의 미라클"(저자 이정현 목사)을 출판했다.

▲문의: 뉴욕사무실 NYchpress@gmail.com (718)886-4400
LA사무실 LAchpress@gmail.com (213)674-7982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시론 3면
최해근 목사



푸른초장 4면
정성환 목사



미국기독교의사회의역사 7면
이길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kccbooks.com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대흥장로교회
Dae Hueng Presbyterian Church



김정훈 목사

살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대흥장로교회에서는 김정훈 목사를 3대 담임목사로 모시고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흥장로교회 성도 일동

일시 : 2022년 3월 20일(주일) 오후 3시

장소 : 대흥장로교회 본당

말씀 : 노창수 목사 (남가주 사랑의교회 담임)

주일예배 : 오전 8:30(1부) 오전 11:00(2부)	영어예배부 : 오전 9:30, 오전 11:00
유치부 :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 월-토 오전 6:00
유초등부 : 오전 11:00	금요 찬양예배 : 오후 7:30
중고등부 :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www.dkpc.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CP) **대흥장로교회** Dae Hueng Presbyterian Church

발행인 칼럼

공정의 패러독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작고에 채워져 감옥에 던져진 바울을 보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살라고 권면하였다. 그는 어디에서고 이렇게 외쳤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9-10). 패러독스다.

토크쇼 이치는 스무 번 이상 감옥에 들락거려다 잔인한 살인 혐의로 1918년 도쿄에서 교수형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선 교사들이 건네준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는 이런 글을 남기고 예수님 품에 안겼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사람들은 내가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으니 몹시 슬퍼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의 작은 방에서 사형 날을 기다리는 나는 조금도 슬퍼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한히 행복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요하게 하고-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 같은 약방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가난한 내가 많은 자를 부요하게 만드는 자 될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을 교회에 초청하여 만난 것은 중등부 교육전도사 때였으니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시는 슬프게 시작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없으니 얼마나 참담한가. 그러다 놀라운 공정의 패러독스가 이어진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긍정적인 패러독스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패러독스를 말한 사람도 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병원과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부정의 패러독스는 부인하고 싶으나 사실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정의 패러독스로 가득 차 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마8:35).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6:38).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존재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공정의 패러독스 사람이다. 세상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놓으며 살아가는 공정의 패러독스 사람이다. 세상의 계산과 판단을 부끄럽게 만들며 사는 공정의 패러독스 사람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9,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아직은 캄캄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 종식은?

BBC, 외교전문 제임스 렌달 기자의 5가지 우크라이나 종전 시나리오 보도

전쟁의 안개 속에서 앞날이 캄캄해 보일 수 있다. 전쟁 소식과 외교적 잡음, 피란민의 무거운 슬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잠시 한발 물러서

서 우크라이나 내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자 (Ukraine Crisis: Five 'End of War' Scenarios).

전문가들이 말하는 시나리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BBC 외교 전문가 제임스 렌달은 미래를 정확히 내다 볼 순 없지만 몇 가지 가능한 전개 상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단기전

이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가 군사작전의 강도를 키워나가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더 많은 무차별적인 포격과 미사일을 퍼붓는다. 지금까지 크게 개입하지 않고 있던 러시아 공군이 엄청난 공습을 시작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다.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 공급과 통신망이 끊긴다. 민간인 사망자는 수천 명에 이른다.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저가 등의 변화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의 연결을 끊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수립된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부는 정당성도 없으며 내란에 부딪힐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전

더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현 상황이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 시나리

전의지를 굳힌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 러시아의 지도자가 바뀌면 러시아군은 고개를 숙이고 피를 흘린 채 리아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선배들이 이슬람 반군과 10년간의 긴 전쟁 끝에 1989년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것처럼 말이다.

유럽전

있다. NATO 헌장 제5조는 회원국 한 곳에 대한 군사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 방법이 자신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다면 위협을 감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패배에 직면했다고 느낀다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원할



세계와 러시아 관계, 유럽의 태도 등 변화 예상 자유주의와 규칙 기반의 세계질서 재발견 시간

수도 키이우(키예프)가 며칠 안에 함락되고 우크라이나 현 정권은 교체돼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전락한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암살당하거나 망명정부수립을 위해 우크라이나 서부 혹은 해외로 도피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리선언과 함께 러시아군은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 돌아간다. 수천 명의 피란민들은 계속 서부지역으로 도망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처럼 러시아에 의존해 살아가다.

이런 시나리오가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순 없다. 다만 러시아군의 성과가 향상되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병력이 증강되고,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의지가 사라

오에선 러시아군이 낮은 사기와 형편없는 물자보급, 부족한 리더십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러시아군이 장기적으로 키이우와 같은 도시들을 포위한 상황에서 도시 점령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난 1990년대 체첸공화국의 수도인 그로즈니를 점령하고 파괴하기 위한 러시아의 길고 잔인한 싸움을 연상시키는 모습이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지역을 모두 통제할 만한 충분한 규모의 군대를 계속 보내지 못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실질적으로 반란군으로 변모해 지역 주민들의 지지 속에 계속 항

이런 전쟁이 우크라이나 국경 밖으로도 번질 수 있을까?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아니면서 옛 소련의 영토인 몰도바와 조지아 등에 군대를 보내 옛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더 회복하려 들 수 있다.

아니면 잘못된 정당성 확립과 전쟁 확대의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을 침략행위로 규정하며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아니면 리투아니아 등 NATO 회원국인 발트해 연안국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협박할 수 있다. 본토와 떨어져 있는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 본토 간에 육지 회랑을 건설하기 위해 말이다.

이 매우 위험한 선택은 NATO와의 전쟁을 초래할 수

지도 모른다. 푸틴 대통령은 오랜 국제 규범을 깨뜨릴 의지가 있는 인물이다.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 러시아 핵 운용 부대에 경계 강화를 명령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대부분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행보는 러시아는 원칙상 전장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상기시켜 줬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은 없을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현재 서로 총을 겨누고 있지만 대화의 길은 언제나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확실히 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은 진행 중이다.

(4면으로 계속)

조정민 목사 초청 말씀 축제

"다시 복음 앞에 서다" (롬 1:16-17)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말씀축제는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복음화와 평신도의 신앙 향상을 위해 덕망 있는 한인 목회자를 초청해 말씀과 찬양으로 지친 영혼을 회복케 하며 잠든 영혼을 깨우는 집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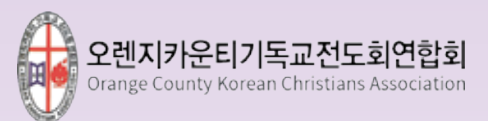
일시: 3월 13일(주일) 저녁 6시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조정민 목사 집회 일정
3/11 (금) - 13 (주일) 감사한인교회
3/13 (주일) 6:00 PM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관: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장로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후원: 남가주사랑의교회, OC목사회, OChan인여성목사회, 미주복음방송, CHTV, 크리스천헤럴드, 사람과사회,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기독교일보, 크리스천투데이, 크리스천위클리, CGNTV, CTS America, 남가주사랑의교회
문의: 213-500-5449

** 이 집회는 유튜브 채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에서 실시간 방송됩니다 **

www.ockca.org / info@ockca.org / Youtube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조정민 목사

前 언론인, 現 목사.
MBC 기자 및 MBC 뉴스데스크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이사, 온누리교회 목사.
現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

팬데믹 이전수준회복 정체...

(1면에서 계속) 복음주의 목회자(70%)는 주류 목회자(49%)보다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실제로 참석하도록 특별히 권장한다고 답할 가능성이 더 크다. 주일출석이 200명 이상인 교회의 목사(72%)는 소규모 교회보다 온라인에서 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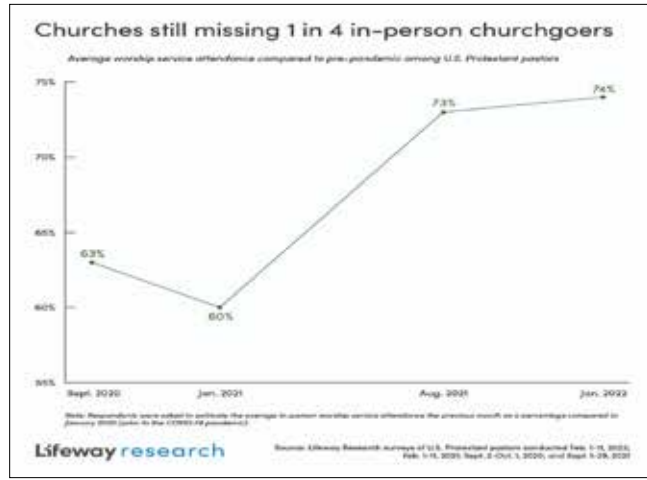
전염병 영향

팬데믹은 계속해서 교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절반(51%)은 COVID-19가 그들의 사역에

88%는 교회 참석자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로를 도왔다고 말했다. 3명 중 거의 2명(63%)은 교인들이 최근 지역의 전염병 관련 필요를 충족했다고 말했다. 2021년 동 리서치 설문에서도 대부분의 미국인(63%)은 지역 사회의 교회가 전염병 동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12%의 교회만이 팬데믹 기간 동안 숫자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됐다고 말한다.

목회자 5명 중 4명(83%)은 과거에 교회에 출석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람들이 최근에 교회에 출석하거나 직접 연락했다고 말했다. 목회자 4명 중 약 3명(74%)은 지난 6



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목회자들은 현재 대유행 이전에 존재했던 성인을 위한 소그룹 수업의 79%가 현재 모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다. 여기에는 69%가 직접 모인다고 보고한다. 2021년 1월에 COVID-19 이전에 존재했던 그룹의 36%는 직접 만났고, 25%는 온라인

이전 수준의 90% 미만이라고 말했지만 33%는 출석률이 2020년 초 수준에 가깝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10%는 학생사역이 성장했다고 말한다. 학생 사역과 마찬가지로 대유행 이전에 어린이사역 활동을 한 10개 교회 중 9개에 가까운 교회가 적어도 일부

2022년 1월 97% 대면예배 실시불구 25%는 불참 소그룹, 학생 어린이 사역 재개로 사역회복 기대

이미 존재했던 약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14%는 전염병이 교회 사역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COVID-19가 교회에 사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12%) 교회를 더 높은 수

개월 동안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교회에 접속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3분의 1(33%)은 자신의 교회에 많은 필요가 있어 지

나 전화로 연결됐으며, 33%는 만나지 않았다.

팬데믹 이전에 학생 및 아동 사역활동을 했던 교회들 중 대부분은 재개됐지만 아직까지 출석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또한 심대에 비해 어린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COVID-19 이전에 학생사역을 했던 목회자 10명 중 거의 9명은 모든 활동이 다시 대면모임으로 돌아간다고 답한 70%를 포함해 최소한 일부 활동

(86%)을 직접 재개했다고 말했다.

적어도 일부 학생사역 활동을 직접 만나는 평균적인 목사는 참석률이 전염병 이전의 65%라고 말한다. 대부분(58%)은 출석률이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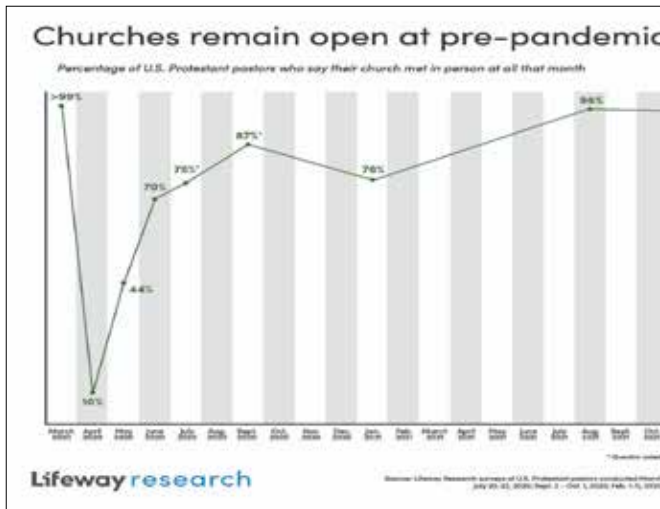
활동을 직접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86%). 그러나 교회는 어린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다시 직접 모이는 것으로(64%) 말할 가능성이 적다.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교회(22%)가 자녀의 활동 중 일부만 직접 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 교회에서 어린이사역 활동 중 최소한 일부를 수행하는 평균적인 미국 개신교 교회에서는 팬데믹 이전 출석에 비해 어린이의 64%가 참여하고 있다. 5명 중 3명(60%)은 출석률이 COVID-19 이전의 90% 미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학생 사역과 마찬가지로 32%는 출석률이 2020년 초 수준에 가깝다고 보고하고 8%는 어린이 사역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론으로, 맥코넬은 이렇게 말했다. "주일학교와 소그룹을 재개함으로써 전염병 이전 참가자의 대다수가 이 중요한 연결지점 즉 대면예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머타임 시작

3월 13일(주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된다. 오전 1시를 2시로 한시간 빨리 돌려놓으면 된다.



준의 사역으로 시작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훨씬 적다(17%).

대부분의 교회는 COVID-19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목회자 10명 중 거의 9명(88%)이 자신의 교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COVID-19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5개 교회 중 약 1개 교회(21%)가 코로나19로 신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개신교 목사의

역사회에 다가가는 데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사역 회복

대면예배로 돌아가는 것 외에도 대부분의 목사들은 교회 소그룹, 학생 사역, 어린이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말한다.

작년 1월에 비해 더 많은 소그룹이 지금 만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나



시론

코로나의 두 색깔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코로나가 미국을 휩쓸고 있는 지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957,000명이 코로나로 인해 생명을 잃었고 79,200,000명이 감염을 경험했으며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와 관련된 정치색깔과 이로 인해 일어난 결과입니다.

2020년 봄, 미국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가장 심각하게 전염을 경험한 도시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였습니다. 2020년 초반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하신 분들의 절대다수는 푸른색, 곧 민주당이 대세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기승을 부릴 때 직격탄을 맞은 지역은 대부분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대도시, 예컨대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략 2020년 12월을 넘기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다 2021년 4월부터는 확실하게 붉은색, 곧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희생되기 시작합니다. 2021년 7월부터는 현저하게 붉은 색 쪽, 곧 공화당 지지 카운티에서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백신접종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도시들은 백신접종을 큰 거부감 없이 수용했지만 공화당이 주류를 이루는 카운티에서는 백신접종률이 형편없이 낮았으며 그 결과 2021년 7월경부터는 백신접종 거부율이 높은 지역에서 현역하게 더 많은 사망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지역과 가까이 있는 뉴저지 오션카운티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인구 200명당 1명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런 수치는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남미 페루와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이런 오션카운티에서는 코로나 부스터 샷을 맞은 사람들이 26%에 불과하며 1, 2차 백신접종을 다 받은 사람들도 53%에 불과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는 현격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 사망자는 어떤 지역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비교 분석해 보면 위기와 혼돈의 시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견디느냐에 따라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생과 사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고도 큰 소리로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곳에서부터 첫 걸음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쯤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통신망이 발달하면서부터 진실과 성실함보다는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정보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자신의 득표에 유리하도록 상황을 조작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삶의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정치가 우리 주변에 마치 표준인 것처럼 자리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아픈 현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비뚤어진 지도자들에 의해 마지막으로 희생을 당하게 되는 쪽은 언제나 힘없고 정보력이 모자라는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마저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가까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득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2천년전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서도 이미 있었음을 문득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수라는 한 의로운 젊은이의 생명을 놓고 진실을 찾기보다 자신들이 누릴 종교적인 실리를 언급하며, 그 젊은이를 형장의 희생물로 보내었던 그 시대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과 오늘의 부패한 정치인 사이에는 똑같은 유전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날 희생되었던 그 젊은이 예수에 의해 인류는 새로운 생명의 가치와 역사의 방향을 보게 되었고 그 부패한 권력자들은 캄캄한 역사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시대를 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살롬...

hankschoi@gmail.com

Advertisement for '기독교 문화사역' (Christian Cultural Ministry) featuring a video player for '순삭성경 Hisfinger Media' and a list of video thumbnails with titles like '신림' and '싸움에서 이기려면'.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뜻 나눔 영롱한 만남

슈바이처 박사는 나의 청소년 시절의 영웅이었다. 그 때 후로는 언제 어디서나 그의 이름이 눈에 띄면 반가움이 솟구치곤 했다. 목회자 휴일이라는 한적한 월요일 오전에 지난달 여촌 이승중 목사로부터 선물 받은

‘어깨동무 뜻 나눔’이라는 책을 들추다가 역시 슈바이처의 이름에 초점이 멈췄다. 슈바이처를 자신의 멘토로 삼아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어깨동무사역’의 케이스 스터디용으로 실어둔 내용이였다. 굉장한 감동이 있어

함께 나누려고 한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미국의 오일 재벌인 걸프사의 창립자의 아들로 태어난 래리머 멜론(1910-1989)의 인생 스토리이다. 그의 작은 아버지는 당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다. 부와 명문가의 부름을 안고 태어나 성장한 래리머는 프린스턴 대학을 중퇴하고 결혼했지만 파경을 맞았다. 고향 피츠버그를 떠나 서부를 거쳐 아리조나에 정착하여 결혼하고 목장주로서 성공과 부요를 이뤘다. 래리머가 어느 날 라이프 잡지를 들추다가 슈바이처의 기사를 읽는다. ‘생명의 경외’라는 슈바이처 신학에 강한 매력을 느꼈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와 존엄 앞에서 어떤 것이라도 생명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큰 죄악으로 여긴다는 슈바이처 신학의 골수인 ‘생명의 경외’에 래리머는 사로 잡혔다. 그는 그의 친구를 슈바이처의 삶의 현장이 있는 아프리카

로 보냈다. 그가 운영하는 병원과 삶의 주변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었던 것이다. 슈바이처를 만나고 돌아온 친구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데 만나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전달받은 래리머는 슈바이처의 삶에 완전히 매료당했다. 그리고 자신도 슈바이처처럼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박사와의 편지 교제가 시작되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에 65번의 편지와 전보 등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이 직접 대면의 만남은 교제가 시작한 3년 후였고 단 한 번의 만남이 처음이었고 끝이었다. 비록 멀리 있었지만 두 사람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단단히 묶였다. 래리머는 1947년 나이 37세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7년 수업을 마치고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한 후 아이티의 빈민촌에 들어가 병원을 건립했다. 그리고 그 병원 이름을 ‘슈바이처 병원’이라고

불었다. 두 사람은 비록 36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래리머에게 슈바이처는 스승이었고 친구였고 동역자였다. 여촌 이승중 목사는 이 단원을 마감하는 글에서 뜻 모음란에 이렇게 적었다. “한 사람의 인격적인 영향력은 전염성이 강하다. 아름다운 만남은 인격의 교감이다. 슈바이처는 오래 전부터 부인 이 간호사 훈련을 마치면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위한 준비를 했다. 자신의 공명심과 탐욕을 버릴 수 있음은 깨달음과 결단이다. 위대한 삶을 목격한 사람의 결단은 또 다른 위대한 열매를 가져온다. 슈바이처는 많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생각과 사상이 구체적일 때 그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7년 수업을 마치고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한 후 아이티의 빈민촌에 들어가 병원을 건립했다. 그리고 그 병원 이름을 ‘슈바이처 병원’이라고

성의 열매이다”(이승중 저, “어깨동무 뜻모음”, p.191). 여차피 인생이, 목회자, 현대 세대들이 모두 솔로 시대를 걷고 있다. 기밀 언덕도 없고 맘 터놓고 밀담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세대이다. 우리 모두 어깨동무 사역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어깨동무 사역들이 계속해서 번져 나가오면 좋겠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9-12).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정성환 목사
(새생명한인교회)



2021년 12월 6일 목요일 아침에 전도서 11장을 쓰면서 이 구절을 발견하고 아바라 구절이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전도자 코헬렛, 코헬렛은 설교자 또는 교사 총칭인도자입니다. 코헬렛은 회중 가운데 설교자와 교사요 총칭인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을 이 전도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지혜와 지식을 관통하는 진리, 그 자체가 구나 하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 구절을 새번역은 이렇게 옮겨놓았습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과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빛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태양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 최초로 창조된

것이 빛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비롯하여 천하 만물이 이 빛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이 빛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사가야 60장 19절 새번역입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

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빛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빛을 따르는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오순절 성령강림 직후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서로 서로 머리 위에 임한 성령의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가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Arise, shine! 일어나십시오. 이 세상 어둠에 다니지 마시고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 위에 임한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6장 10절 새번역

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41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구절은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1:7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의 빛과 땅에 속한 몸의 빛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

우리는 자체 발광하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 태양 빛을 받아 반사는 달과 같은 빛입니다. 우리가 내는 빛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을 마음껏 받아 반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빛을 내지만 모든 빛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서 빛을 받아 반사하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햇빛이든 달빛이든 별빛이든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붉은 빛이든 노란 빛이든 파란 빛이든 하얀 빛이든 비추시고, 서로 그 빛의 영광을 보며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눈으로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몸으로 해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 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코비드19 중에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이 땅에 속한 몸의 영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예수님의 밝은 빛을 마음껏 비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chjohn11@naver.com

경이로운 빛 전도서 11장 7절

이 구절은 지혜와 지식을 관통하는 진리, 그 자체가 구나 하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 구절을 새번역은 이렇게 옮겨놓았습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과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빛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태양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 최초로 창조된

것이 빛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비롯하여 천하 만물이 이 빛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이 빛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사가야 60장 19절 새번역입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

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빛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빛을 따르는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태양처럼 눈이 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빛을 보십니까? 어떤 이는 새벽처럼 밝습니다. 어떤 이는 보름달처럼 환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태양처럼 눈이 부십니다. 그 빛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

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햇빛처럼 눈이 부시고, 어떤 이는 달빛처럼 환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의 별빛처럼 반짝반짝입니다. 붉은 빛을 내는 별이 있는가 하면 노란 빛을, 푸른빛을, 하얀 빛을 내는 빛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빛을 내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무슨 빛을 내는가?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빛을 받아 빛을 내는 빛들입니다.

아직은 캄캄한 우크라이나...

(2면에서 계속) 에마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통화로 의견을 전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벨라루스와의 접경지대에서 만났다.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한 회담이었을 지라도 푸틴 대통령은 회담 자체에는 동의함으로써 휴전 가능성을 아주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출구’를 서방 국가가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반러제재 해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야 체면을 구기지 않은 협상이 최소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교적 해결의 시나리오를 생

각해보자. 전쟁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반러제재가 러시아를 옥죄다. 러시아군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반전 여론이 거세진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야욕이 과했는지 고민하게 된다. 전쟁을 끝내는 굴욕보다 전쟁을 지속하는 편이 오히려 러시아 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중국이 개입해 러시아에 타협 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탈출구를 찾기 시작한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파괴돼가는 자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정치적 타협이 엄청난 인명 소실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양측 외교관들이 나서 거래를 서사한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 일부와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다. 대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고 인정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의 유혈 사태가 심각해진다는 전제하에 아주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푸틴 축출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떻게. 그는 침공을 개시하며 “우리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결과와 자신의 실권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해보지 못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은 최근 며칠간 변하고 있고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보는 만하다. 로렌스 프리드먼 런던 킹스칼리지 전쟁학 명예교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듯 러시아에서도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번 주 밝혔다.

프리드먼 교수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푸틴 대통령이 처참한 전쟁을 지속한다고 생각해보자. 숨진 러시아군이 수천 명에 이르고 경제 제재는 더욱 러시아를 조여 온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잃는다. 시민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치안부대를 이용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려 들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할 뿐이고 러시아 군부, 정치, 경제 엘리트 다수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서방 세계는 푸틴 대통령이 물러나고 좀 더 온건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재 일부도 해제하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다. 크렘린궁 내부에서 권력싸움이 일어나고 푸틴 대통령이 축출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더 이상 푸틴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



고 믿게 된다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결론 여러 시나리오에서 언급한 상황이 섞여서 전개되는 등 이 시나리오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도 아니며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든 세상은 변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계와 러시아의 관계는 이전과 다를 것이다. 안보에 대한 유럽의 태도 또한 변화할 것이다. 자유주의와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또한 애초에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재발견하는 시간이 갖게 될 것이다.

자기 기준과 변화

종말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강력한 이기적 개인주의로 무장하는 것을 본다. 항상 자기 자신이 기준이다. 항상 자기를 기준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반응한다. 이런 관점에서 삶을 대하는 이들은 변화가 어렵고 더딘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 기준을 고집하는 삶은 신앙생활에서도 자신의 영혼과 공동체에 큰 영적손실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교회와 예배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야 하는데, 교회가 자신의 삶에 맞추도록 요구한다. 비즈니스의 환경에 따라 교회가 시간을 조정하기 원하고, 목회자들은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마음이 약해져서 옳고 바른 것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된다. 괜한 분쟁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 피하지만 실은 타협이라

기준하여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삶, 늘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기중심적이며 병적인 자기에(愛)를 가진 인생의 당연한 귀결점이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의 순서를 가져야 한다. 문학에서 말하는 전지적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영적인 일들 앞에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의견이 왔다갔다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은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될 따름이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 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삶을 지탱하는 살길이 되는 것이다.

예배의 실패로 인한 멸망도 정확하게 기록하신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며 본인들도 제사장이었는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예배에 실패해서 멸망한 것이다. 가인과 사울왕도 예배에 실패해서 망한 사람들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 외식하는 저들을 향해,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임을 말씀하셨다.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배자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위기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삶의 내용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또 어디로 가

주시기 위해 친히 셋팅해 두신 것이 있다. 바로 예배이다. 예배를 통해 죄를 없애 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 마침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지고 좋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무엇보다도 죄 많은 인생과 죄 없으신 하나님이 만나는 교제,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

돈을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공력을 쏟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생명을 드려도 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예배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립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놀랍게 복음을 증거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느 설교자가 설교시에 이 빌립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보면 집사가 아닌 12제자중의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지요? 빌립집사가 아닌지요?

-애나하임에서 최동석 목사

A: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목사들도 혼동하기 쉬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일곱 집사중의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피택된 자였고 교회 회계업무에 수고하다가 하나님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쓰시게 되자 나중에는 전도자로 변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8절을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 넷은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와 맞먹는 영력의 소유자임을 보여줍니다.

행8장의 빌립은 일곱 집사 중 한사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한 자는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8:1 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자들은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쳤던 박용규 교수도 그의 책 '성령의 복음'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p.393). "누가는 빌립이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8:6)라고 증언한다. 여기서 복음을 증거한 빌립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빌립은 동료 스테반의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용기, 그들을 죽이려하는 이들을 전혀 저주하지 않는 원수사랑, 죽은 순간에서도 천사같은 스테반의 얼굴을 목격하면서 놀라운 신앙의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 흩어진 자들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곳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신앙의 공동체가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장된 것이다."

사도행전 8:7절을 주목해보면 이전에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이적이거나 표적과는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째, 이전에 사도들에 의해 행했던 기사와 이적 특히 성된 미물에 앉았던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매우 제한된 사람, 곧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병고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7절에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나 중풍병자들이 나온 사건은 한두 사람이 아닌 상당히 많은 다수였습니다. 둘째,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았다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곱 집사들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사도들보다 더 크고 더 강했다. 구제를 위해 선택된 일곱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그들에게 임했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사도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차별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교회, 세상과 삶의 축복 (7)

- 변화와 회복, 예배와 교회

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조차 성경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런저런 불편한 갈등과 때로는 긴 영적전투를 치러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면 변화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변화의 기회를 잃게 될 때 자신과 삶에 나타나는 피해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사울 왕을 보면 예배의 잘못을 통해 왕권이 떨어지고 가문이 멸망해감에도 핑계에 급급함을 본다. 부득이했다는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영적 실패는 그의 인생의 실패를 가져왔고 자신만이 아니라 세 아들이 한낱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흔히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육신의 문제를 분리시키려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실패는 반드시 현재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참 변화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금고가 털렸을 때, 경찰은 전과자들을 제일 먼저 추적한다. 그만큼 사람의 변화가 쉽지 않음을 세상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 약간은 가능하겠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어렵다고 말한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이 없다고 말씀한다. 의인이 없을뿐더러 그 의의 하는 독사의 혀와 같고, 발이 열마나 빠르니 피흘리는 데만 따라 다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한 그것조차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삶의 변화와 회복, 예배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생활과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된다.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배와 삶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예배와 삶은 하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 속의 예배가 살아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만이 오직 한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예배가 너무 많다는 비판을 한다. 주일 낮, 주일오후,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구역예배, 금요일예배 등을 나열한다. 아직도 옛날방식으로 목회하나? 그러나 그런 비판의 시류와 상관없이 예배가 되었던 기도회가 되었던 교회의 공적인 예배나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성도는 부지런히 모여야 한다. 예배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예배 횟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교회와 가정,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자주 예배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이웃들과의 최고의 섬김과 교제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세상에서도 예배에 승리함으로 복을 받았다. 반면에 예배에 실패함으로 저주를 받은 흔적도 아주 명백하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 나라의 영적회복을 위해 백성들을 모으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때 숙적 블레셋이 침략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부지기수이다.

는지 알지 못하고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방황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연못위의 부평 초처럼 뿌리 없이 바람과 물결 따라 흘러가는 떠돌이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다.

떠도는 영혼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다시 기초를 확고하고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뿌리를 확인하고 가야된다. 사다리에 오를 때 아무리 급해도 받침이 밑바닥에 잘 붙어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올라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항상 회복을 위한 뿌리 확인부터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자랄 수 있고 그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며 맛나는 열매의 향기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뿌리 깊은 곳, 저수지의 근원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예배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 인생이 참된 뿌리의 근원을 확인할 길은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장소, 회복의 도구로 교회와 예배를 허락하셨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다. 정한시간 정한 장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최고의 하나님, 최선의 예배

예배가 회복되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축복의 원리가 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예배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이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더 나아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할 것이 예배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배의 중요성은 강조에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그리스도인은 잘 몰라서 그렇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은 타성에 젖어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흔히 예배를 '은혜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동기가 목적이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성을 바쳐야 한다. 정성이 없으면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곧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과 진리의 예배는 시간과 정성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예배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이 최고의 변화와 축복을 맛보는 길이다.

예배가 회복이다. 예배가 축복이다. 예배의 온전함을 위해 교회가 살아야 한다. 교회가 살려면 예배가 살아야 한다.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될 때 그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davidnjon@yahoo.com

피종진 목사 3월 부흥성회



○ 단국대학교 총동맹회 전문위원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ABK) 제12기 동문회 교문
○ 한국유육주립대학교
영역 연구원 동문회 대표교관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M.Min)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1(화) 오전 구리시 성민중앙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화) 오후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전국목사 회개금식기도원
3(목) 오후 구국기도회 정소 국회대로 동우빌딩 (0507 - 1477-3341)
6(주) 저녁 상주 청리교회 (김재원 목사) 010-9335-3622
7(월) 오전 한국기독교 영통회 중경회장단 (회장 오병철 목사) 010-5313-9448 정소. 명가린
7(월) 저녁 경산뉴시온성교회(정태운 목사) 주최 뉴글로벌부흥사회 (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8(화) 오전 서울 기쁨의교회 (이호진 목사) 010-3290-4595
10(목) 오전 이천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 010-9397-3581
10(목) 오후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6181-9182
주최 나라사랑기독교운동본부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준비위원장 남보성 목사 010-7220-0733 14(월) 오전 서울 중로 100주년 기념관 주최 (사) 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민 목사) 010-7527-1691
14(월)~16(수) 제5차 전국교회 중직자 영적각성 제주 컨퍼런스 정소 제주도 삼해원 관광호텔 특설T를 주최 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예배회복운동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기성 목사)
17(목)~19(토) 내장산 남경산 기도원 및 5개 기도원 순회성회 (원장 김대성 목사) 010-5276-0441
20(주)~21(월) W.C.P 세계교회협의회(사무총장 정진배 목사) 정소 익산 기쁨의 교회 (박윤성 목사) 21(월) 공주 예수팔복교회 (최명자 목사) 010-5353-7756
22(화) 오전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 (대표회장 권영미 목사) 010-5603-4997
24(목) 오후 시흥빛빛영광교회 (정해영 목사) 010-8014-3121
28(월)~29(화) 세계슬로모노지주협의회 연합성회 정소 천안위대한속교회 (윤재민 목사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30(수) 저녁 서울대학교 (ABK) 12기동문 아로연약회 정소 푸른나무 문화공작소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내게 필요한 전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가 신뢰하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 죽음에 통째로 내어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진리의 길을 찾아가게 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하고... 또 자라나고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통하

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그분께 복종함으로써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또한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성숙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입니다. 내안에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감격적인 부르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팔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육신의 눈으로 본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요20:29).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지배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 존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신뢰하는 모든 규범들은 믿음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기호 등은 우리가 물질세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냄새, 기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히11:6). 처음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지만 새로 거듭난 신자의 믿음은 영적 유아상태로 평생 지낼 수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성장해가듯이 믿음도 계속 성장해가야 합니다. 성숙해가는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

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막연한 수준 높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롬10:17)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거부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보다 나 자신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나 자신을 더욱 신뢰하면 모든 불행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탓합니다. 나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면 다른 사람의 티보다 자신에게 있는 들보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증표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표입니다. 멀지 않은 날 이 땅에서의 순례의 여정은 끝이 날 것입니다. 본향의 집으로 가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찾아올 것입니다. 지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

혔던 이어령 교수님이 최근 이 세상에서의 순례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영혼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던 그의 따님 이민아 변호사의 기도요청을 받고 큰 글자성경을 선물로 주며 그의 아버지의 영혼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순간이 뭉클 떠오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관계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본향의 집으로 갈 때는 단 한 가지 믿음만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남을 것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본향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That's it!!!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포탈 속 우크라이나 “복음이 희망”

“올해 보급할 분량의 성경은 이미 인쇄해 냈는데 벌써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제 2월인데 말이죠. 어떻게 더 구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로 21년째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에 몸담고 있는 아나톨리 레이키네츠(43·사진) 사무차장이 털어놓은 고민이다. 지난달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호주 성서공회 뉴스매체인 ‘인터넷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그는 비슷한 시점에 미국 성서공회 CEO인 로버트 브릭스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도 “지난 몇 주 동안 목사들과(가톨릭) 사제들이 성경을 사려고 키에프(키이우)에 있는 성서공회 매장에 몰려들었다. 재고가 소진돼 성경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지부가 들어선 이래 성경 품질 사대까지 우려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레이키네츠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전쟁의 공포가 엄습한) 현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 생활 그 이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일요일이나 토요일, 또는 주중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면 개인교든, 정교회든, 가톨릭 신자든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을 들려줬다. 레이키네츠는 자신의 교회를 찾아온 세 아이를 둔 40대 중반 부부를 맞이했다. 그들은 러시아 침공의 도화선이 된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출신이었다. 수년 전 내전으로 다른 가족을 여러 명 잃었던, 전쟁의 참혹함을 체험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십자가만 보고 교회로 들어왔다. 교회에 다녀본 적도, 성경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 가족은 그날 저녁 예정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레이키네츠는 “많은 이들은 지금 기도하고 싶어하고 희망이나 위안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복음에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레이키네츠는 위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찾아온 이들에게 시편 31편 21절의 말씀을 자주 나눈다고 했다. “여호와와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으로다.” 그는 “이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이들이 ‘마치 2022년 지금 여기 키예프가 처한 상황을 두고 쓰인 위로의 말씀 같다’며 놀라워한다”고 전했다.

레이키네츠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경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쟁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많은 이들이 교회로 물리자 목회자들이 이들을 위해 성경 구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다양한 종파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중순 복음주의 신자들이 드린 예배는 현장 예배참석자 1000여명 외에 유튜브를 통한 예배자만 4만5000명에 달했다.

신앙적 대화의 문, 기독교인들이 닫는다고?

미국인 대다수가 자신의 친구 혹은 낯선 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개방적인 반면 자신의 기독교인 친구나 가족이 신앙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인 1002명을 대상으로 ‘미국인들의 신앙에 대한 개방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6%)은 친구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것에 마음이 열려있으며, 그 중 41%는 ‘매우 개방적’이라고 밝혔다. ‘개방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대화 상대를 낯선 사람으로 바꿨을 때도 72%가 개방적이라고 응답할 만큼 신앙적 대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명 중 6명(60%)은 ‘기독교인 친구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의 친구나 가족이 신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신앙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10명 중 4명(40%)에 달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으며 기독교인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스콧 매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총괄디렉터는 “이는 종교의 자유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듣기를 원치 않거나, 종교가 금지당하는 문제와는 별개”라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화가 없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 기독교인들은 왜 자신의 신앙을 공유하지 않고 있을까. 기독교 비영리단체 프로브미니스트리스(probe ministries)는 지난해 미국인 3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그 이유를 ‘다원주의의 수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기독교인은 717명이었다. 기독교인 응답자 10명 중 7명(70%)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천국에 가는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이에게 내 생각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성경은 남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스티브 케이블 브로브미니스트리스 수석 부사장은 이 같은 응답의 원인이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문화적 우위를 잃은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로 하여금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다른 어떤 이름에도 구원은 없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 종전중재자 될까?

러시아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종전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 회담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회담을 중재할 지도자로 키릴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 교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키릴 총대주교가 평화 회담을 제안할 적임자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안 사우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 직무 대행은 지난 2일 키릴 총대주교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루마니아정교회 사제인 사우카 총무 직무 대행은 서한을 발송하게 된 이유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WCC가 키릴 총대주교와 접촉해 전쟁을 멈추고 고통이 끝나도록 주선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우카 총무 직무 대행은 “희망이 없는 시대에 많은 사람이 당신을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희망의 표지를 물었다 줄 사람으로 보고 있다”며 “부디 수난받는 형제·자매를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 달라.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도 정교회의 신실한 구성원들”이라고 호소했다.

스타니스와프 가데츠키 폴란드 주교회의 의장도 같은 날 키릴 총대주교에게 “푸틴 대통령에게 호소해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분별없는 전쟁 행위를 그만두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러시아 병사들이 불의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말해 달라”고도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일 러시아정교회 소속 150여 명의 성직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종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와 가까운 행보를 보여온 러시아정교회 성직자 다수가 전쟁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에 부여한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이 서쪽이든 동쪽이든, 어딜 선택하더라도 총구를 겨누는 압력 없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고통에 동공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키릴 총대주교가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당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남정우 대구 하늘담은교회 목사는 7일 국민

일보와 통화에서 “동방정교회와는 달리 러시아 정교회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공산 정권의 종교였던 것도 이런 현실이 되는 데 일조했고 국가 종교로서 오랜 세월 누렸던 특권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온라인교회 금지령

중국 공산당이 이달부터 온라인 종교활동에 대한 엄격한 단속에 돌입했다. 이른바 온라인 교회 금지령으로, ‘디지털 박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4일 기독교박해감시기구인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종교의 중국화’ 조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예배 스트리밍이나 설교, 출판 등 인터넷 활동을 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어떤 단체나 개인도 ‘종교의 이름으로’ 온라인 헌금(또는 기부)을 할 수 없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각종 성경 공부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에서 중국 당국이 승인해주는 종교는 5개 종교(삼자교회(개신교) 천주교 도교 불교 이슬람교)로 제한된다. 개신교의 경우,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교회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곧 중국 내 가정교회들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영국·아일랜드 오픈도어스의 데이비드 랜드럼 이사는 최근 영국 기독교 매체인 프리미어 크리스천투데이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성경 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신자들의 교제를 와해시키며, 전도의 기회를 크게 감소시킨다”고 우려했다.

앞서 중국은 이미 등록된 교회를 대상으로 얼굴 인식이 가능한 CCTV를 설치토록 해 감시하고 있다. 오프라인 교회에 대해서는 폐쇄하거나 철거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재판 없이 투옥하는가 하면, 성경도 압수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원칙’을 반영한다며 성경 내용의 일부를 임의로 바꾸기도 했다. 일례로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불쌍히 여서 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장)라고 말한 부분의 경우, 예수가 여인을 돌려 쳐서 죽이는 일에 참여했다는 식으로 고쳤다.

랜드럼 이사는 “중국 당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건 중국내 기독교의 성장이 중국 공산주의 통치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오픈도어스가 매년 집계하는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중국이 불과 3년 만에 26계단이나 상승한 것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스는 이달 말 영국 런던에서 디지털 박해에 대응하는 학술회의를 연다. 랜드럼 이사는 “중국 기독교인들은 (현 체제 속에서도) 신자들간의 교제와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 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복음을 위한 대면 소통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예일과 앤드루 신학교는 모두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갔지만 프린스턴신학교는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을 든든히 지켜 나갔다. 당시 유럽에서 건너온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미국 전체에 거세로 몰려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자민 워필드는 프린스턴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막아내었고 전통적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든든히 세워 나간 그 위대함을 살펴보자.

워필드는 찰스 하지의 신학을 계승 보존하였다. 워필드는 대표적인 저작은 없지만, 그러나 20년 넘게 Princeton Review의 편집자로서 워필드는 온갖 종류의 도전과 비판으로부터 전통적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을 잘 방어하였다.

특히 워필드는 그 시대에 성경의 무오성에 도전하는 여러 종류의 성경 비판학의 이론에 맞서 성경의 신뢰성과 성경의 무오성을 변증하는데 온 힘을 다하였다.

화란에서는 바빙크가 과학적 자연주의(Scientific naturalism), 신학적 자유주의(Liberalism),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 이성(autonomous human reason)에 기초한 사상으로 성경의 무오성과 성경의 권위를 비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열심히 싸웠고, 바빙크는 성경의 무오성과 개혁주의 신학을 잘 방어하였다.

일반적으로 워필드(Benjamin Warfield, 1851-1921), 화란의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당시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불리워졌다.

워필드에 대한 좋은 연구 자료들은 아래와 같다.

△Fred G. Zaspel의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A Systematic Summary' △Kim Riddlebarger의 'The Lion of Princeton: B.B. Warfield as Apologist and Theologian' △Paul Helm 'B.B. Warfield's Pathtolnerancy: An Attempt to Correct Some Serious Misunderstandings'(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2 (2010): 23-42).

워필드는 펜실베이니아주 Allegheny에 있는 Western Theological Seminary(지금은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성경 교수직을 처음 제안 받았지만 그의 주요 관심은 신약성경 연구였기 때문에 본인이 수락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1877년 가을, Western의 신약성서 교수인 Samuel T. Lowrie가 사임했을 때 워필드는 이듬해 가을에 교수가 되었고, 곧 신약성서 문학 및 주석 교수(professor of New Testament Literature and Exegesis)가 되었다.

취임 연설에서 그는 성경의 무오성 교리(the doctrine of Scripture)를 변증했다. 그의 주제 발표 제목은 "신약성서 전체 영감에 관한 교회의 교

리가 현대 성서비평의 확실한 결과로 인해 위협에 처해 있습니까?"(Is the Church Doctrine of the Plenary Inspiration of the New Testament Endangered by the Assured Results of Modern Biblical Criticism?)였다.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으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Polemic Theology)로 임명되는 것을 수락했다.

워필드는 34년 동안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가르쳤고 신학교 저널을 편집했으며 수많은 논문, 찬송가, 시, 1200개 이상의 서평을 썼고 교수진을 주재했으며, 동창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캠퍼스 안과 밖에서 많은 설교를 했다. 워필드는 Alexander Hall 옆에 있는 신학교 캠퍼스의 Hodge House에

다. 워필드의 이러한 견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표준문서와 일치한다. 워필드의 성경 교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능하시며 불변하시는 속성에 기초하고 있다. 전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오류가 없으며 정확 무오하다.

워필드는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16에 나오는 헬라

creative breath of the Almighty).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감된 기록이다.

성경의 기원이 성령의 역사에 있으며 가장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성경의 모든 고상한 속성이 세워진 것은 바로 이 신성한 기원의 기초 위에 있다. 성경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속성위에 세워진 신적 기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It is on this foundation of Divine origin that all the high attributes of Scripture are built) (Ibid., 130).

워필드는 "하나님의 감동"을 "가장 높은 하나님의 속성"(all the high attributes) 위에 세워진 것을 강조하며, 이 용어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실 때 하나님과 성경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다.

이러한 워필드의 성경의 영감론은 역사적으로 믿어온 전통적인 성경의 영감론과 일치하며 성서 비판론자들이 대하여 성경의 무오성을 변증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워필드의 변증학에 대해서 살펴보자. 워필드와 바빙크의 변증학의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분 모두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다.

워필드는 화란 개혁신학보다 스코틀랜드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전통을 따른다. 워필드는 변증학에서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는 방법에 대해 화란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와 접근 방법이 다르다.

워필드는 "증거주의"(evidentialism) 변증학을 가르쳤지만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는 "전제주의"(presuppositional Apologetics) 변증학을 발전시켰다. 아브라함 카이퍼와 워필드의 변증학 방법론의 차이는 나중에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큰 논쟁이 되었고 차이의 범위는 크게 확장되었다.

1929년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는 분열되었고 전통적 칼빈주의 및 개혁주의를 지닌 훌륭한 신학자들은 필라델피아에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를 설립했고, 이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친 젊은 신학자는 코넬리우스 반 틸(Cornelius Van Til)이었으며, 반틸은 워필드의 증거주의 변증학이 아니라 화란의 카이퍼와 바빙크의 전제주의 변증학을 가르쳤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의 큰 틀에서 보면 화란의 카이퍼, 혹은 프린스턴의 워필드 모두 훌륭한 개혁신학자들이다. 이들의 전통은 모두 계승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후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워필드로 칭한다.

KHL0206@gmail.com



미국 개혁주의신학의 역사 (5)

벤자민 워필드(Benjamin Warfield, 1851-1921)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벤자민 워필드

서 살았다. 프린스턴에서 강의하는 동안 그는 1892년 뉴저지대학(프린스턴)과 데이비슨대학에서 LL.D.(명예법학박사), 1911년 Lafayette College에서 D.LL.(명예문학박사), 그리고 1913년 화란의 위트레흐트대학교(UNIVERSITEIT UTRECHT)에서 신학박사(STD)를 받았다. 워필드는 주요 신학적 관심분야는 기독교론, 칼빈과 어거스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완전주의, 펠라기우스주

어 단어, θεόπνευστος(Theopneustos, God-breathed)에 집중한다. 워필드는 헤르만 크레머(Hermann Cremer)가 출판한 헬라어 사전에서 "θεόπνευστος"(하나님의 감동으로)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역의 의미인 "하나님의 감동으로"를 부정하고, 오히려 "독자들을 감동하는" 의미로 매우 고극적인 의미로 설명한 오류를 지적하였다. 성경의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반응으로 바꾸었다.

프린스턴에서 자유주의신학 물결 막고 개혁신학 세워 스코틀랜드 칼빈주의 개혁신학 전통 따른 '증거주의' 변증학 주장 카이퍼와 접근방법 달라 후진들에 의해 웨스트민스터신학교로 분리

의, 진화론, 신약, 성경론이었다. 이 중에서 오늘날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분야는 성경론(the doctrine of Scripture)이다. 워필드는 성경원본(original autographs)에서 성경의 무오성을 변호하는 데 매우 열정적이었다. 특별히 성경의 영감(revelation and inspiration)에 대한 그의 학구적인 열정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워필드에 의하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이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그러나 워필드는 다른 여러 사전, 고대사본들, 신학문헌 및 성경에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θεόπνευστος"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하게 기록했다 논증하면서 성경의 무오성을 변증했다("God-Inspired Scripture,"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Review 11:41 (Jan. 1900): 89-130). "θεόπνευστος"는 "하나님의 감동으로"(God-breathed)이며, 성경은 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숨결로서 창조되었다(produced by the

그러나 워필드는 다른 여러 사전, 고대사본들, 신학문헌 및 성경에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θεόπνευστος"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하게 기록했다 논증하면서 성경의 무오성을 변증했다("God-Inspired Scripture,"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Review 11:41 (Jan. 1900): 89-130). "θεόπνευστος"는 "하나님의 감동으로"(God-breathed)이며, 성경은 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숨결로서 창조되었다(produced by the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423-9700, Fax: (213) 703-996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영양진도: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2) 8021112, estocross@yahoo.com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임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St, Levittown, PA 1906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다민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6,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기, 유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lca.org 2 Main St, Hingham, MA 01948</p>
<p>새생명안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베: 오후 7:00(목/토) 새벽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5502 Old Behner Rd, Crestview, FL 32536</p>	<p>안디옥교회</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 749-98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일산사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은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영양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42(H), (254) 6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p> <p>Tel: (253) 536-6675, www.tbcomlca.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55)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생애와 작품들 (4)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9. 오웬의 저작들의 의미- 오웬의 신학과 그의 저작들에 대한 평가

1)실천적이며 논쟁적이며 구원론적인 신학자

그는 17세기 영국의 최고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책은 "John Owen, The Works of John Owen, 25 vols.(London: Johnston and Hunter, 1850-53), reprinte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1967)"으로 남아 있다.

오웬의 신학은 한 마디로 실천적이며 논쟁적이며 구원론적 신학이다. 우리가 오웬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웬이 당시 알미니안주의, 소시니안주의, 백스테리안주의, 로마카톨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학을 정립하는지 그의 지적이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살펴볼아야 한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그가 기독교신앙의 정통성을 수호했는지를 그의 저작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웬은 조지 폭스(1624-1691)가 주장하는 '내적인 빛'에 의존하는 '케이커'파도 단호하게 비판하였다.

2)영적인 삶의 강조

'영국의 칼빈'으로 불린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명저 '삼위일체 신학', '중생과 성화론', '죄 죽이기',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론', '죄와 유희' 등은 오늘날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필독서이며, 반드시 적용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개혁주의 신학자,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17세기 영국 청교도 신학자인 그는 기독교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성령론을 매우 실제적으로 중요시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오웬의 영성이 탁월했다고 주장한다.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감정과 정서를 중요시했다.

청교도의 신학을 바르게 해석하고 계승해야 할 후대

청교도들을 국교회 밖으로 몰아내었고 찰스 2세는 임종시에 카톨릭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카톨릭 신자들을 정부 요직에 등용하였다. 영국은 카톨릭화 하기 시작하였고, 오웬은 카톨릭과 카톨릭주의를 배교라고 규정하고 복음의 진리와 복음적인 삶과 예배를 수호하기 위하여 책들을 썼다.

오웬의 저술들은 그의 매우 분석적이고 조직적이며 탁월한 지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글의 스타일이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지만, 모

박함을 보여준다.

그는 성경을 근거로 목회적 경험을 치밀한 논리로 펼쳐 하나됨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을 올바르게 세웠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데 적합한 두 가지 사항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사고와 인간에 대한 바른 사고(思考)이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인간의 조라함과 비천함을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겸손과 지성을 가진 목회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과 영혼을 해부

기독교신자의 삶 강조하고 성령론을 매우 실제적으로 중요시

성경을 근거로 목회적 경험을 치밀한 논리로 펼쳐,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을 바로 세우

의 신학자들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감정과 정서를 무시하고, 계몽주의자들처럼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그는 오히려 기독교신앙의 신앙생활에서 경험을 강조했으며 그리하여 확신과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오웬은 당시 신비주의자들이 종교적 황홀감을 맞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집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고 합당하게 필요한 감정적 차원을 강조했다.

3)복음적인 삶과 예배 수호

그는 격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청교도 혁명의 성공과 실패, 카톨릭주의와 카톨릭의 득세를 목격하였고 때로는 강단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당시 찰스 2세는 왕정복고 이후에 통령령을 발표하여

두 그가 심오하게 이해한 은혜의 교리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4)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한 청교도 신학의 최정상의 신학자

그는 청교도 신학의 거의 모든 주제들을 다루고 재정의한 신학자이다. 탁월한 저술을 가장 많이 발표한 오웬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의 신학의 깊이와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일 것이다.

개혁자 존 칼빈이 '기독교강요' 1권 첫 소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었던 것은 그 중요성 때문이었던 것처럼 오웬의 신학 속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매우 분석적이며, 통찰력 있는 그의 해

하여 치료하는 영적이며 탁월한 의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작 가운데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내면의 죄', '죄 죽이기'는 매우 세밀한 것을 살피는 통찰력을 볼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의 영광'과 '삼위일체', '기독론', '성령론'은 하나님에 관한 그의 지식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오웬은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았으며,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하여 경험한 모든 것을 다시 성경으로 해석했다.

오웬의 신학체계는 칼빈을 넘어 어거스틴과 교부들의 작품, 그리고 유대 랍비문서를 넘나들며 방대한 신학을 섭렵함을 통하여 세워진 거대한 저서수와 같다. 이에 필자는 그를 연구한 많은 이들의 평가를 모아 다음호부터 그의 위대한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절대 권력(Absolute Power)

남아공의 민주화 상징인 넬슨 만델라와 세계 최악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인도의 민족운동가인 마하트마 간디와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성경의 요셉과 사울, 이들의 차이는 권력 사용에 있다. 전자는 권력을 살리는 데 사용해서 위인이 되었고 후자는 파괴하는 데 그것을 사용해 오명의 인물이 되었다.

권력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주변을 살릴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는 남아공에서 백인 정권이 인종차별정책을 하는 것에 투쟁하다가 27년 6개월 간 감옥살이를 했다. 출옥 후 그는 인종차별정책 폐지를 선도하여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에도 당선되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대통령이 된 후 그가 취한 태도이다. 자기를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도 있었겠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폭력 대신 화해와 용서였고 그것이 그의 권력을 두었다.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며 투쟁하던 흑인들을 잔혹하게 죽인 가해자들에게 대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사면해주고 적절한 경제적 보상도 주며 용서의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의 마음도 어루만지며 화해의 나라로 이끌었다.

반면 성경 속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남부러울 것 없는 자신의 지위를 부하인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다. 그의 파괴적인 권력은 관계의 파괴로 이어져 사울의 심복 다윗은 물론이고 아들 요나단과도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했다.

사울은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 성경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진 자였음을 엿볼 수 있다(삼상9:21). 그러나 권력을 사용하게하며 그의 마음은 권력을 남용하는 자로 변해갔다. 권력을 추구하고 움켜쥘수록 사울은 탐욕으로 일그러진 흉물스러운 인간으로 변하게 되었다. 권력을 잡은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의 사울처럼 바르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권력이 주는 힘에 도취되어 수치스러운 말로를 맞이하는 것 같다. 영국 역사가 액턴 경(Lord Acton)도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했다.

요즘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절대 권력자가 있다. 우크라이나에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 그는 자신의 야욕을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미명 하에 포효하는 야수처럼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세계 곳곳에는 전쟁을 반대하며 푸틴을 규탄하는 시위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러시아에서조차도 '푸틴만 전쟁을 원하고 있다'고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에게 전쟁을 멈추라고 수천 명의 사람이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푸틴은 용단을 내려야 한다. 디는 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겁박하는 파괴적인 권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용한 권력은 독재자라는 오명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오르내릴 것이다.

yanghur@gmail.com

Table with church listing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NY, NJ, HI, and Mexico. Each entry includes church name, pastor name,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개의 귀를 얼굴에 붙여주셨습니다. 얼굴에 붙여주신 두개의 귀는 들어야 할 소리들을 잘 구별하여서 분명하게 듣고 싶으나 후회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소리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변

에 들려주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밀물처럼 밀려오는 정보와 소리들의 공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헛갈리게 하는 소리의 공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두개의 귀를 잘 활용하여 들어야 할 소리는 잘 듣고 들어서는 안 될 소리는 듣지 아니하는 소리의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많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들어도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 자주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막4:9).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두개의 귀는 물론 마음의 귀를 열어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귀중한 삶을 위한 정보가 되는 그 소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강론하는 설교자들의 외치는 소리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늘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고도 밝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조하여 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딤후4:1).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소 아시아의 일곱교회는 초대교회의 대표격인 교회들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 때에 놀랍게도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계시의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교회나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이나 책들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듣는 소식과 정보와 소리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열성적으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열고 시간만 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잡다한 소리 다양한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의 정체성이나 사회의 상황인식이나 국제정세의 복잡한 현실 가운데 개인은 물론 사회 지도층 나아가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특별히 일반적인 소리를 넘어 말씀하여 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 밝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밝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면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임과 새 생명으로의 자기 부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히 세례자 요한에

게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되니”(마3:16).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경험하고 충만한 상태에 머무를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던짐을 받게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정답을 찾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정답을 얻어 오늘과 내일을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cyd777@hotmail.com

UMC 총회 또다시 2024년으로 연기

보수그룹 새 교단 GMC, 5월 1일 출범계획

금년 8월 중 열릴 예정이던 연합감리교(UMC) 총회(General Conference)가 또 다시 2024년으로 연기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예정됐던 총회를 5월에서 8월로 연기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2022년 8월로 연기했다가 또 다시 2024년으로 연기돼 세 번째 연기되는 셈이다.

연합감리교 뉴스에 따르면 “총회위원회는 해외 대의원 비자 발급 지체로 인해 총회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UMC 총회에 앞서 2019년에 열린 특별총회에서는 예상외로 성소수자 연합감리교인의 안수와 결혼에 대한 금지를 강화하는 전통적 플랜이 통과된 후 일부 연회에서는 이를 불복종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다음 총회에서 보수입장의 교회들이 건물과 기타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교단으로 떠날 수 있는 ‘화해와 은혜의 분리의정서’를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처럼 총회가 다시 연기되자 그동안 보수적인 그룹이 추



진해왔던 새로운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GMC, Global Methodist Church)는 예정된 8월 총회 이후인 올해 말에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총회가 다시 연기되자 계획을 앞당겨 5월 1일에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감리교 뉴스는 미국 내 UMC 연회들은 지난 2년 동안 약 130개 교회의 탈퇴를 승인했으며, 교단을 떠나는 교회의 대부분은 전통주의 입장을 가진 교회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차기 총회에는 862명의 대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었는데, 그중 55.9%는 미국에서, 32%는 아프리카에서,

6%는 필리핀에서, 4.6%는 유럽에서 선출됐고, 나머지는 연합감리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협약교회로부터 선출됐다. 일반적으로 총회에는 감독, 통역사, 직원, 자원봉사자 및 전 세계에서 초청된 게스트들이 참석하지만 감독은 총회를 주재할 뿐 투표권은 없다.

미국의 다른 개신교 교단들은 이미 성소수자(LGBTQ) 이슈와 관련해 비슷한 분열을 겪었지만 연합감리교회의 전 세계적인 모임인 총회가 코로나로 인해 3년째 연기되자 비분비적 요소에 교단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냉소적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2022 세계기도일예배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총회장 이복임 집사)가 주최한 2022 세계기도일예배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렘29:11)라는 주제로 시카고 한미장로교회(담임 고훈 목사)에서 4일 5시(서부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열렸다.

올해 예배문 작성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여성들이다.

세계기도일은 전 세계 180여 개국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함께 모여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기도해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교파 여성 기도운동’이다.

이복임 회장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세계기도일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동역자에게 문안 드린다. 주예수안에 있는 평강이 가정과 교회위에 함께 있기를 축원한다”며 “간절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과 소망을 주실 것이다. 세상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영원한 생명주시는 빛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복임 회장의 인사, 그리고 증경회장 강성숙 사모의 시계기도일 소개, 심형란 권사(예배인도자) 개회기도로 시작된 세계기도일 예배는 한혜숙 집사(시카고연합회 회장)가 대표기도, 심형란 권사(시카고 서부지역장) 인사와 나눔, 한미장로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이어 고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고훈 목사는 “기도하는 예배는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치유하심이 있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며 “세상 속에서 세속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남

은 자라고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영성은 남은 자의 영성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참 좋은 신앙”이라 말했다.

그는 “우리가 남은 자의 영성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이웃과 땅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돼야 하며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남은 자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예배하는 이유이며 호흡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축복의 기도는 다시 기도하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함께 중보할 때 우리와 우리교회를 축복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설교에 이어 고백의 기도, 희망의 이야기, 성찰 및 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이애준 권사(시카고 북부지역) 인도로 합심기도 했으며 파송과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김명주 목사(갈보리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주최 2022 세계기도일예배가 시카고 한미장로교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사진은축하해 원인은 연합회 회장 이복임 집사가 인사말하는 모습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가 주최한 신춘음악회에서 참석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봄이 오는 소리’ 주제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신춘음악회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성애 권사) 신춘음악회가 ‘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3

월 6일 오후 5시 새찬양교회(담임 최우진 목사)에서 열었다. 민승기 목사(갈보리새생명

(박준호 기자)

교회) 시작기도와 연주분과위원장 정주언 집사 사회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바리톤 장상근,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 소프라노 김미경, LA목사중창단(지휘 서문욱), 메조소프라노 조지영, 테너 오위영, 실비치한인합창단(지휘 백경환), 켈타발레 퀘텟(보컬 오위영, 바이올린 김정아, 첼로 김원선, 키보드 안정희, 피아노 이동욱)이 출연해 아름다운 가곡과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였다.

이날 음악회는 전출연자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를 부른 뒤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건강한 식습관 캠페인

소셜미디어 통해 어린이 영양 레시피 소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3월 한 달 동안 건강한 식습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3월은 ‘전국 영양의 달(National Nutrition Month)’이며, 13일부터 19일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푸드 프로그램인 CACFP(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의 홍보 주간이다. 특히 CACFP 홍보주간을 맞아 한인가정상담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레시피를 비디오로 제작해 알릴 예정이다.

한인가정상담소 고나영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 매니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건강하

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식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편식하는 아이들에게는 식재료를 직접 고르거나 같이 요리하는 체험 등이 식습관을 고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한인가정상담소는 어린이 이집과 유치원이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Child Care Food Program, CCFP)’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관리, 교육하는 일을 하고



산샘교회에서 열린 2022 임직감사예배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되라’

산샘교회 임직감사예배, 장로 4명 등 총 12명 임직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0세부터 12세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데이케어 자격증이 있는 에프터스쿨 등의 식재료비를 환급(reimburse)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푸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나 자격, 지원금액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 문의는 (213)235-4846, nko@kfamla.org 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산샘교회(담임 윤석형 목사) 2022 산샘 임직감사예배가 3월 6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산샘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윤석형 목사 집례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전경구 장로(남서부 지방회 장로부회장/유니온교회)가 기도했으며 표희곤 목사(남서부지방회 서기/은혜샘교회)가 성경봉독 했으며 산샘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김현석 목사(지방회장/새민음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마24:44-46, 눅12:41-43)’이라는 제목으로 말

씀을 선포했다.

김현석 목사는 “주님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일꾼을 세우기 원하셨다. 초심을 잃지 않는 일꾼, 내가 예수님께 부름 받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일꾼, 내가 청지기임을 분명히 아는 일꾼이다. 그런 일꾼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2부 임직예식은 원로장로, 명예장로 소개, 추대, 공포, 추대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식은 소개, 장로서약, 안수례 공포, 권사서약, 악수례, 공포, 축하패 증정으로 이어졌다. 3부 축하의 시간에는 김신일 목사(남서부지방회 증경회장/유니온교회)가 권면, 최경환 목사(증경총회장/시온교회 원로)가 축사했으며 임직자들이 답사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조종근 목사(증경총회장/짜수스베이션교회 원로)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이다.

△원로장로: 기영완 △명예장로: 강경원, 김성준 △장로: 김용준, 송인규, 신태석, 임도진 △권사: 강삼미, 신은미, 안선태, 임숙화, 조영선.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신학생(신교사후보 포함) 장학생 모집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가 다음세대 이민교회를 위해 헌신할 신학생과 선교사 후보 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총 7명에게 각 3000달러를 후원하며 더불어 뉴욕의 대표적 교회들과 맨해튼 탐방시간 및 영육이 재충전 될 수 있는 리트릿도 갖는다. 자격은 미국내 정규 신학교 풀타임 재학생으로 △제출서류는 온라인 지원신청(kcqny.org),이력서 1부, 추천서(목회 및 교수) 2부, 자기소개서/사역계획서(각 2장 이내) 각 1부 재학/성적 증명서 각 1부. △접수 마감은 4월 1일(금)이며 자세한 내용은 퀸즈한인교회 홈페이지(kcqny.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917)975-0832 이한석 목사 hanseok.lee@kcqny.org

뉴욕교협 목회자 세미나

뉴욕교협이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3월 18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사랑장로교회(담임 정준성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정성욱 박사(덴버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선착순 50명에게 교재를 배부한다(뉴욕예일장로교회 제공).

▲문의: (718)279-1414

뉴저지교계 특별연합기도회

뉴저지교협(회장 고한승 목사)과 뉴저지목사회(회장 윤명호 목사)가 공동주최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특별 연합기도회가 3월 11일(금) 저녁 8시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날 드려진 특별헌금은 우크라이나 대사에 직접 전달한다.

▲문의: (201)816-1284



한성개척교회 설립30주년 및 성전봉헌감사 찬양예배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지역사회에 복음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한성개척교회 설립30주년 및 성전봉헌감사 찬양예배

뉴저지 한성개척교회 설립 30주년 및 성전 봉헌감사 찬양예배가 3월 6일 오후 5시 본 교회 당에서 열렸다.

담임 송호민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개척하시고 고재철 목사님 후임으로 지난 10년간 사역했다”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앞으로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고재철 목사의 부인인 김명숙 사모에게 장미꽃 30송이가 담긴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1부 예배 ‘예벰에셀의 은혜’는 송호민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 G2G(박승호 이성기 집사), 기도 이관용 장로, 설교 김종국 목사(새언약교회 담임), 축사 양춘길 목사(엘그림신학교교회 담임), 축하동영상(아이티 김혜련 선교사, 남태평양 원천회 부총신교사, 남아공 문성준 선교사), 축사 및 축도 이병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국 목사는 “30년 전과 후”(히11: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30년전 개척한 고재철 목사와 교회를 회고하며 “믿음으로 시작된 한성개척교회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30년은 하나님만

을 바라봤던 그 방향에서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고 달려가길 바란다”고 말하고 “한 영혼을 위해 죽기를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송호민 목사의 마음이 한성개척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축원했다.

2부 찬양제 ‘여호와이레의 은혜’는 이은영 집사 진행으로 SOWERS 찬양음악회로 진행됐으며 중간에 피아노 듀오(전은애 전은실 사모, “거룩한 성”), G2G(“오직 주의 은혜로”) 특송이 있었다.

SOWERS 찬양단은 지역교회의 전문음악인들로 구성된 찬양단으로 이날 반주에 서미영, 이은영, 노래 백승현, 만나영, 김차들, 최유라, 등이 “위대하신 주를 찬양”, “O mio babbino caro”, “박연폭포”, “그리운 금강산”, “나를 통하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등을 연주했다.

마지막 곡(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은 이지연 사모의 첼로 연주와 유스팀이 함께 찬양했다.

이날 예배는 이용걸 목사(영성장로교회 원로)의 축복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효신장로교회 문석호 담임목사 사임

뉴욕효신장로교회 2대 담임 문석호 목사가 3월 4일부로 담임목사직을 사임했다. 문석호 목사는 2007년 1월부터 방직 교 목사와 공동목회를 시작해 7월 담임목사로 취임했으며 15년간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효신장로교회가 소속한 ARPC 북동노회는 정기노회에서 3월 4일자로 문석호 목사의 담임목사의 직을 사임/퇴임(Retirement/Resignation)하고, 은퇴목사(Retired Pastor)로 위치를 변경시켰다. 이에 따라 문 목사는 4월 말까지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게 된다.

교회는 새로운 3대 담임목사

정빙절자를 위해 노회의 규정을 따라 청빙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3월 6일 주일예배에는 노회 관계자가 교회를 방문해 노회의 결정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문석호 목사는 2022년 9월에 은퇴하기로 예정됐으나 교회내부 문제로 교회내 의견이 분열된 가운데 6개월여 먼저 퇴임하게 됐다.

한편 문석호 목사는 뉴욕 교회협의회와 목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향후 기도원 사역과 선교와 교육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리: 유원정 기자)



KAPC 뉴욕서노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노회장 오영상 목사, 부노회장 박종옥 목사

KAPC 뉴욕서노회 90회 정기노회, 새임원 선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 정기노회가 3월 8일 오전 9시부터 뉴욕전성장로교회(담임 신두현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일원의 KAPC 노회 중 첫 번째로 열린 뉴욕서노회 제 90회 정기노회는 1부 예배, 2부 회무처리로 진행됐다.

이날 임사부(부장 이승원, 서기 박종옥) 공천으로 선임된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오영상 목사(뉴욕세빛교회) △부노회장 박종옥 목사(사랑장로교회) △서기 성호영 목사(하나님이기뻐하시는교회) △부서기 남일현 목사(듣는한교회) △회록서기 승철 목사(늘푸른한마음교회) △부회록서기 신두현 목사(전성장로교회) △회계 한병현 장로(백인교회), 윤형선 장로(주님의교회).

회무는 노회장 박정식 목사 사회로 이만수 목사 기도 후 시작됐으며 목사 27명, 선교사 2명, 장로 2명 등 총 31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카고 소재 15세 교회로 청빙 받아 이주하는 이영우 목사가 인사했으며 김진곤 선교사가

참석해 선교보고 시간을 가졌다.

뉴욕서노회는 동시철회(30교회), 서시철회(14교회)가 있으며, 노회파송 및 협력 선교사 7곳을 후원하고 있다.

회무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정식 목사 인도로 기도 성호영 목사, 설교 오영상 목사, 성전예식 집례 이종주 목사, 헌금기도 남일현 목사, 축도 신두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오영상 목사는 “복과 저주”(신 11:26-2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가 있음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저주를 택했다. 신약 백성들 앞에도 복과 저주가 놓여있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목회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도 복과 저주 앞에 있다. 복음증거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 주신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본향 찾는 자” 주제

뉴욕센트럴교회 특별초청말씀집회, 강사 김성국 목사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3월 1일부터 사흘간 “본향 찾는 자”라는 주제로 특별초청 말씀집회를 열었다. 강사는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

김재열 목사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며 강사를 소개하며, 3월 표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말했다.

1일 저녁 8시 시작된 예배는 김재열 목사 인도로 기도 이성주 장로, 3040선교회 찬양후 김성국 목사가 설교했다.

김성국 목사는 “폭풍우 가운데”(욥38:1-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가?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살까? 3가지 질문을 하며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말하고 IMF 당시 한국방문 때 기도원에서 응답받았던 일, 퀸즈장로교회에 담임으로 왔을 때 변해버린 목회환경을 다민족교회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일 등에 대한 간증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첫째, 하나님은 이 폭풍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본분을 보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내 말 하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둘째, 하나님은 옴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켜 더 큰 축복을 주셨다.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고난을 통해 지경을 넓히고 감정의 복 받는 준비를 하라. 셋째,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모든 삶이 인내다. 가장 멋진 자의 모습이 인내다”라고 말했다.

김성국 목사는 “예배자로 충성된 자의 모습을 보이며 경건한 자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합심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김성국 목사는 둘째 날 “부흥의 길”(왕하6:1-7), 셋째 날 “본향 찾는 자”(히11:13-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편 둘째 날 집회에는 퀸즈장로교회 글로리아싱어즈가 특송을 하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주최 애국 구국기도회 2일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뉴욕교협 31절 기념 애국 구국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이 31절 기념 애국 구국기도회를 3월 1일부터 3일간 개최했다.

31절 기도회는 오전 10시 뉴욕영안교회(김경열 목사)에서 열렸으며 애국 구국기도회는 2일과 3일 주님의식탁교회(이종선 목사)에서 열렸다.

첫날 1부 예배는 김경열 목사 인도로 기도 장규준 목사, 설교 이풍삼 목사, 헌금기도 우화선 목사, 축도 라흥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풍삼 목사는 신명기 21:22-23절을 본문으로 “가장 저주받은 자”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2부는 애국가 제창, 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의 인사 후에 특별통성기도가 진행됐다. 김희복 목사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천이었다. 나라 없는 존재는 가치가 없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자”고 부탁했다.

이어 31절을 맞아 독립선언서 낭독 원혜림 권사, 만세삼창 한문수 목사, 삼일절 노래 제창 후 노재화 목사의 마침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둘째 날 구국기도회 예배는 임영건 목사 인도로 기도 백달영 장로, 설교 박태규 목사, 헌금기도 김주열 장로, 축도 김원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태규 목사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자”(단2:31-4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느브갓네살 왕의 꿈을 풀이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본문은 세계

역사의 시작과 펼쳐지는 것을 보여준다”며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70이레, 7년 대환란, 아바겟돈전쟁 등에 대해 풀이하고 “지금은 예수 십자가죽음 이후 이방교회시대로 한 이레가 남은 시대”라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말했다.

셋째 날 예배는 이종선 목사 인도로 찬양과 경배 안경순 목사, 기도 하정민 목사, 오라리나 연주 및 찬양 김사라 목사와 안경순 목사, 설교 이상훈 목사(“예벰에셀하나님”, 삼상7:1-12), 헌금기도 김일태 이사장, 광고 임영건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합심기도 제목과 3일간에 걸친 기도인도자는 다음과 같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방영 목사, 하정민 목사, 허윤준 목사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김정숙 목사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하정민 목사, 박향우 목사, 김사라 목사 △한인 디아스포라와 뉴욕한인사회를 위해: 박현영 목사, 송영희 목사 △뉴욕 교협과 목사회를 위해: 이종선 목사, 노재화 목사, 지도자 목사 △교협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 이창중 목사, 고요한 목사 △우크라이나 전쟁종식과 선교사들과 교협 선교대회를 위해: 최윤섭 목사, 이승진 목사, 안경순 목사.

(유원정 기자)



뉴욕센트럴교회 특별초청말씀집회가 열리고 있다. 원내는 강사 김성국 목사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p>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p>	<p>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p>
---	---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한인 기독교미디어의 미래 진단

2022년 세기연 비전 워크숍, 4개 주제 발표

세계기독교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이하 세기연)가 주최한 2022년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비전워크숍이 지난 3월 3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공개홀에서 '세계한인기독교 미디어의 미래를 진단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영선 사장은 "세기연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가지고 지향하는 것과 신앙공동체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각 언론사들이 교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기관화가 되어야 하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 종합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첫 번째 시간은 △'팬데믹 이후 크리스천 언론의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살롬 김 박사(비전 멘토링)가 영상 강연을 했다.

김 박사는 "세상 풍조와 시대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양철학사에 근거해 세상 풍조에 대해서 프리모더니즘(1608년 까지), 모더니즘(1609-1940), 포스트모더니즘(1941-2016년), 그리고 포스트모탈리즘(Postmortalism, 2017년부터 현재)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포스트모탈리즘 시대를 4차 산업혁명(2017-)과 5차 산업혁명(현재 시작 중)로 나눴는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데이터사이언스, 유전자 위로, 5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탈인간화, 탈지구화, 탈대면화 라고 소개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김종성 실장(KCMUSA)이 △"통계로 보는 2022년 미주한인교회 현황"을 발표했다.



2022년 세기연 비전 워크숍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 실장은 KCMUSA가 2002년 미주한인교회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한 센서스 통계와 결과 분석을 통해 "지난 2019년에 조사한 교회수 3,514개에 비해서 2년만인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미주한인교회가 2,791개로 약 21%가 감소했다"며, "이는 5곳 중 1개가 없어진 셈이며 이는 바나리 서치 조사에서 팬데믹 사태 이후 미국 내 교회 5개 중 1개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일치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회 감소의 원인 분석에서 1)코비드19와 정부 지원부족 2)이민 감소와 한인 1세 교인 감소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한인교회가 감소했다는 것은 엄밀히 보면 한인 1세 교회가 줄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세 번째 워크숍에서는 서인실 사장(크리스천투데이)이 △"종이신문과 인터넷 미디어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서 사장은 먼저 "종이신문과 인터넷 미디어의 현주소"를 종이신문의 위기, 열독율과 구독률의 감소, 모바일 뉴스 소비 급증 현상이라고 진단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의 격동적인 변화의 예로, 뉴욕타임스의 경우

구독자의 90%가 디지털 신문을 구독한다고 소개했다.

서 사장은 "인터넷 미디어의 문제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난립하는데 완성도가 떨어지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많고 시민기자들의 쓰는 기사가 전하는 팩트의 비정확성, 그리고 기사와 광고인지 혼란을 주는 것들이 많아서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현재 언론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주한인교회 종이신문과 미디어 현실"에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급성장할 때 신문사 숫자도 많았다. 그런데 미주한인교회의 감소가 기독교언론사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1975년 버지니아에서 발행돼 초창기 한인교회 영향 끼쳤던 미주복음신문도 2009년 폐간됐다. 2015년에 14개 기독교언론사가 있었다.

그동안 3개 사가 폐간하고 종이신문이 줄고 디지털신문만 늘었다. 오프라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그룹 트랜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의 제약이 있다는 점, 구독료 인상폭이 더딘 점 등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소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사장은 "저널리즘이 나아가 갈 길은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다. 종이신문 감정을 디지털 신문 강점과 접목하는 길로 나아가 한다"라며 "최고의 무기는 최상의 콘텐츠다. 그리고 멀티태스킹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각편집 강화, 독자와 소통하는 양방향 미디어콘텐츠로 변화 시도, '직장인'이 아닌 '소명 갖춘 스텝' 발굴과 양육, 외부필진 강화, Google Docs, Google Form 등을 활용한 정보공유, 미래의 독자층 확보를 위한 방안(언어, 플랫폼), 언론사가 저널리즘 중심 정보사업자로 변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워크숍은 정현기 목사(CGNTV)가 △'크리스천 TV와 OTT 등 스트림미디어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했다.

한편 워크숍이 열리기 전 시작된 예배는 부회장 이성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 LA 지사장) 기도후 이성우 목사(크리스천헤럴드 총괄대표)가 '함께 연합함이 중요성과 유익함(시133: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뒤 세기연 회원사와 사역에 대해 강일하 목사 인도로 합심기도를 했으며 서중천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평강교회 설립 41주년 임직식

평강교회(담임 이상기 목사, 2대 목사 송금관 목사)는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아 임직식을 개최한다. 오는 3월 27일(주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임직식에서는 이상우 장로의 원로장로 추대, 최기용, 임 단, 김은성 장로의 장로장립, 최중숙, 김현주, 민인자 권사의 권사임직, 임다나 권사의 권사취임식이 열린다. ▲문의: (626)460-8901

대흥장로교회 김정훈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대흥장로교회는 김정훈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3월 20일(주일) 오후 3시에 갖는다. 이날 말씀은 노창수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 담임)가 하게 된다. ▲문의: (310)719-2244

Youth Kosta 2022

유스코스타 2022가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3월 15일(화)과 16(수)일 양일간 Pacific Academic Mary Pattison Chaple에서 열린다. 6학년부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유스 코스타 2022의 강사는 Daniel Rhee 목사, Paul Nam 목사, 남모세 목사, 이미나 대표, 황인권 대표. ▲문의: (604)446-7976 장세운 전도사

시전 서향 4기 캘리그래피 클래스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전도사)은 '서향 4기 캘리그래피' 클래스를 개강한다. '캘리그래피로 전하는 말씀'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 클래스는 3월 17일부터 5월 5일까지 8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기초반 8주 과정과 중급반 8주 과정이 있다. 개강은 3월 17일(목) 오후 2시이며 1시간30분 수업이다. 장소는 IAM Church(임마누엘선교교회, 4120 W. Pico Bl. LA)이며 수강료는 200달러(재료별도). ▲문의: (818)590-6469

미주장신대 온오프라인 사경회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2022 봄사경회를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3월 15일(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본교 2층 라운지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와 서정운 목사(미주장신대 전 총장)다. 이번 사경회는 현장참석과 함께 온라인 줌으로도 참석 가능하다. 줌아이디는 829 947 6668. ▲문의: StudentDean@pts.edu

세속사상 배격과 창의적 영성회복 포럼

교회에 들어온 세속사상 배격과 창의적 영성 회복을 위한 포럼이 '바르트(K. Barth)와 틸리히(P. Tillich) 사상 비평'이라는 주제로 3월 17일(목) 오후 2시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보민 교수(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현 북음대학교 명예교수). ▲문의: (213)700-1802 최수일 목사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 2022 말씀부흥집회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2022 말씀부흥집회가 '말씀으로 더 깊이'라는 주제로 3월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집회 강사는 류계환(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총무) 목사다. ▲문의: (808)488-3018

"우크라이나 시민과 믿음의 형제 도와주세요!"

월드쉐어USA 전쟁난민 및 기독교인 돕기 결정

월드쉐어USA가 우크라이나 전쟁난민과 참전중인 우크라이나 군종목사 및 기독교인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키르치(Vasily Khimich) 소령이 도움 요청 편지를 월드쉐어USA 강태광 대표에게 보내왔다. 강태광 목사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키르치 소령은 우크라이나 기독교인 선교의 핵심인물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종 목사들은 총 다섯권으로 출판됐다. 이 성경책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박은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임직식을 가졌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를 받은 강 목사는 기도 끝에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

낸 키르치(Vasily Khimich) 소령은 우크라이나가 탈 러시아화를 추진하며 군종 목사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책임장교였고 당시 강태광 목사는 한국군을 대표하는 군종목사로서 자문관이었다. 키르치 소령과 강 목사는 국제기독교군인회(AMCF: Association of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연합활동을 통해 동역해온 친구로, 현재 전역 후 키에프에서 군종 목사를 후원하고 군인 아내로 과부가 된 자매들을 섬기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전쟁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온 것이었다. 그의 편지에 의하면 키르치는 전쟁 중인 키에프에서 민간인을 도우며 현역군종 목사들을 위한 기도와 지원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시민과 믿음의 형제들을 부디 도와주세요!"라고 애타게 도움을 호소한다. 특히 물자난에 시달리는 군종목사들의 전선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전쟁난민이 태어난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사제공: 월드쉐어USA)



나성영락교회 창립 49주년 감사예배에서 축하케익을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자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보이는 교회로

나성영락교회 설립49주년 기념주일예배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설립49주년 기념주일예배가 3월 6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박은성 목사는 "나성영락교회는 1973년에 세워져 지난 49년 동안 이 땅에 밝고 따뜻한 추구해왔고 공의로운 소금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왔다"며 "수많은 사련과 역경 중에도 성도들의 피, 땀, 눈물, 수고, 헌신 그리고 희생의 기도가 있었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전적은혜"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오직 주님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교회, 주님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성도의 위대한 교회,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 너럭히 감당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보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일 오전 11시 지명현 목사와 찬양팀이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원일 장로가 기도했으며 찬양대 찬양이 있었다. 이어 박은성 목사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미 6:6-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은성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해야 한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개인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 사회적 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구조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공출 자비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

을 즐겨야한다. 공동체 안에서 자비 공출을 느끼게 하는 구조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겸손히 사는 것이다. 어디서나 언제나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느낄 때 가능해진다. 겸손과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소프라노 서은재 씨가 특송했으며 케익을 자르며 교회창립 49주년 축하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팬데믹 발생부터 본교회는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기위해 전교인이 성경쓰기운동을 전개했다. 2년여 동안 모아진 전교인의 필사성경을 책으로 엮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은 '우리손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전서'라는 제목의 성경책은 총 다섯권으로 출판됐다. 이 성경책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박은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임직식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전쟁난민들을 돕고 있는 월드쉐어 스텝들



OC전도회연합회 3월 조찬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13일 말씀축제...강사 조정민 목사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3월 정기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 집사)는 지난 5일 에반젤리야대학교 체플실에서 3월 정기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윤강혁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한 기도회에서 남성수 목사(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는 '천국백성의 원리(눅15:3-7)'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이어진 합심기도에서 유우경 이사장은 한국 대선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빨리 종식되고 전쟁의 피해자가 회복되며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13일(주일) 오후 6시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평신도 신앙향상을 위한 말씀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말씀 축제는 '다시 복음 앞에 서다(롬1:16-17)'라는 주제로 한국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다.

조정민 목사는 이번 집회에 대해 "이민자들은 고국을 떠났다는 정신적 외로움과 갈망이 있고 영적 갈급함이 있다"고 말하고 "오렌지카운티 평신도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할 말을 듣는 집회가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 회장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연일 20만명을 넘어서는 매우 조심스런 상황에 목사님을 모시게 됐다"며 "목사님의 건강과 오렌지카운티 평신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올해 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번 말씀축제도 유튜브 채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에서 라이브로 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말씀축제는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주최하고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장로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함께 주관해 팬데믹 시대에 이민자들과 성도들의 신앙회복을 위한 OC교계 연합집회가 됐다.

연합회 신용 회장과 OC교회장 심상은 목사는 앞으로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열리는 교계 행사에는 OC장로협의회와 함께 세 기관이 협력해 지역복음화와 교계 연합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처: (213)500-5449,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info@ockca.org, 유튜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박준호 기자)

개신교인 43% “종교적 신념따라 후보선택”

대선 인식조사 발표, “교회 목사” 19%로 가장 낮아

개신교인은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연구소(대표 윤은성 목사)와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숙근)는 2일 서울 종로구 총회청담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선 관련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개신교인 42.8%가 후보 결정 시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족의 의견’이 40.1%, ‘TV 정치 평론가’가 36.9%를 차지했으며 ‘교회 목사’는 19.0%로 가장 낮았다.

박성철 정치신학연구소장은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극우 기독교 세력이 한국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일부 목회자들이 극단적 이데올로기에 종속돼 교회가 시민 의식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

라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의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는 예상외로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의 부정적 요소인 ‘대장동 사건’과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후보의 부정적 요소인 ‘가족 주가 조작’과 ‘부인의 무속인 연관성’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한 결과, ‘부인의 무속인 연관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60%로 가장 낮았다. 반면 ‘대장동 사건’(65.3%),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67.7%), ‘가족 주가조작’(67.5%)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 소장은 “조사 대상자가 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속인과의 연관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결과는 현 대선 정국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라며 “교인들이 무속에 익숙하고 이를 개인적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라는 공적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신교인들은 목회자나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목회자가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16.3%만 찬성했다. 이는 대상을 한국교회로 확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교회의 정치적 발언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반대한다’(64.1%)는 의견이 ‘찬성한다’(26.1%)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가치에 맞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54.1%)로 답해 ‘그렇다’(39.6%)에 앞섰다.

이번 조사는 아크연구소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피애플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8%다. 지난해 창립한 아크연구소는 한국 사회와 교계의 다양한 현상을 연구·개발해 한국교회에 보급하는 단체다.

“교회 내 성폭력 가해자 66% 교회 리더”

기독교반성폭력센터 ‘2021 상담통계’ 발표

기독교반성폭력센터(센터장 방인성·박유미)를 통해 접수된 성폭력 사례 가운데 3분의 2는 가해자가 교회(선교단체) 리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2021년 상담통계’를 조사한 결과 “목회자와 선교단체 리더, 교수 등 권위를 가진 그룹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45건 중 30건(66%)을 차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 45건의 성폭력 사건이 접수됐다. 피해자가 지목한 가해 대상자의 교회 내 직분으로는 담임목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목사와 전도사 등 부목회자(8명), 선교단체의 간사나 선교사 등 리더(6명), 신학교 교수(3명) 등의 순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전면적이고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의 힘이 어떻게 약해질 수 있는지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교회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2018년부터 4년간 센터에 접수된 누적 사건 262건 중 남성 피해자는 4명으로 여성 피해자가 99%에 달한다. 센터는 “모든 성폭력 고발평등한 문화 속에서 발생하고 유지된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은 교회 안에 여성에 대한 불평등적 구조와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데 비해 이를 처리할 교회법이 미비한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박신원 실장은 “과거에는 ‘내가 예민한 게 아닐까’ ‘괜히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않을까’ 하며 소극적이었던 피해자

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피해자 대다수는 법정 다툼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지만 교회 법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할 길이 없어 사회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각 교단이 뒤늦게나마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이다. 지난해 총회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성폭력 가해자를 제명할 데 이어 ‘성폭력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단 헌법 ‘교리와 정정’의 범과 종류에 ‘성폭력’을 포함했고, 한국기독교교장로회는 목사 안수 과정에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교단은 정책을 세우는 데 그치지 말고 실행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회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와 일어났을 경우 교단이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56차 웨슬리언 국내선교대회 열려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6일 이천순복음교회에서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주삼식 박사)가 6일 경기도 이천순복음교회(김병현 목사)에서 제56차 웨슬리언 국내선교대회를 열었다. ‘웨슬리와 오순절순복음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선교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존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했다.

설교를 맡은 이형로 만리현

교회 원로목사는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웨슬리언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목사는 “18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이 회심했으며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는 술집과 극장이나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다”며 “오늘 우리는 존 웨슬리의 후예로서 ‘성결한 삶’, 예수그리

스도의 ‘증인 된 삶’,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선교대회의 헌금을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다. 구세군 기갑 기성 나성 순복음 예성 등 6개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인 협의회는 웨슬리의 신학을 배우고 전하며 실천하는 웨슬리언 교회 공동체다. 올해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학술제, 세계웨슬리언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손 모아 주세요

기침·예장고신·통합등 교계 중보기도 요청

한국교회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고명진 목사)는 교단 홈페이지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팝업을 띄웠다. 기침총무는 28일 “확전의 우려도 있고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올 수 있는 만큼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침이 요청한 기도제목은 세 가지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물론 피난길에 오른 한국인 선교사, 우크라이나에 남은 현

지인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기도다. 기침이 우크라이나로 파송한 선교사는 7가정이다. 네 가정은 한국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폴란드 불가리아 조지아 등 인근 국가에서 머물고 있다. 김 총무는 “전쟁 후 우크라이나 교회를 품을 방법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류영모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도 이날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는 내용의 목회서신을 발표했다. 류 총회장은 “우크라이나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러시

아와 우크라이나에 복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면서 “무엇보다 유럽 선교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고 권했다. 이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예장고신(총회장 강학근 목사)은 교단 설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부활절까지 진행하는 ‘70일특별새벽기도회’에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예장고신에서는 선교사 한 가정 이 파송돼 활동 중이다. 키예프 인근에서 사역하다 최근 루마니아로 이동해 국경 근처에서 피난민을 돕고 있다.

차기 대표회장에 신화석 목사 내정

세기총, 대표회장단 회의 및 제9-5차 임원회

사단법인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3월 2일 세기총 회의실에서 대표회장단 회의 및 제9-5차 임원회를 갖고 차기 대표회장에 신화석 목사(사단법인 AWMJ선교회 이사장, 안디옥성결교회 원로)를 내정하는 등 제10차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신화석 목사를 수석상임회장으로 선임했다. 세기총은 수석상임회장이 대표회장으로 추대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석상임회장 신화석 목사가 오는 제10차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추대된다.

차기 대표회장에 내정된 신화석 목사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100주년 총회 총회장,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표회장, 2018년 NCOWE VII 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AWMJ선교회 이사장, SHSM선교회 대표, 사단법인 KWMA 세계순회선교사, 국제디아스포라센터(ICDM) 국제자문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신화석 목사는 1979년 안디옥성결교회를 개척한 뒤 42년간 목회하며 안디옥교회를 크게 부흥 성장시켰으며, 지난 2020년 원로로 추대 받은 뒤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신화석 목사는 세계 247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일주선교를 진행하는 중 현재 186개국을 순회하며 선교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뉴노멀 시대 신학·교회의 역할 주제

기독교학회, 융합학술 프로젝트 공모

한국기독교학회(회장 임성빈 장신대 교수)는 ‘뉴노멀 시대 사회·목회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신학·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융합학술 프로젝트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기독교학회는 전국 신학대 및 기독교대학 교수 2000여 명이 회원이다. 산하에 한국구약학회 한국신약학회 한국교회학회 한국교회신학회 한국실천신학회 등 14개 회원 학회가 있

다. 1973년 창립했으며 매년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회원 행사를 기획 중이다.

임성빈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환기의 신학은 교회와 사회를 위해 책임 있는 응답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신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적 노력을 통해 목회 현장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작업을 공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세기총)

“신천지 간부, 신도 개인정보 무단사용”

피해자연대 폭로 회견, “대선 조직적 개입” 주장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 피해자들이 신천지 지도부가 내부 신도들의 개인정보를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에 무단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 활동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주 이만희를 포함한 신천지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강식)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천지 내부

자료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폭로했다.

전피연은 먼저 해당 제보를 토대로 지난 1월 28일과 지난달 4일 발표된 신천지 내부 인사에 주목했다. 신천지는 당시 이교주 명의로 K모 신천지 총회 총무와 O모 신천지 요한지파 총무를 각각 총회 외교정책부장과 요한지파 외교정책부장으로 임명했다. 전피연에 따르면 외교정책부는 비공개 대외협력 업무와 각종 대외 활동을 수행

장애인교육 강화 디지털콘텐츠 제작

총신대, 경기도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자’ 선정

총신대(총장 이재서)는 경기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교육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는 총신대의 강점인 장애인 대상 교육 부분을 강화한다. 교내 장애인지원센터, 총신미디어연구소와 연계해 장애인 대상 디지털 리더십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진행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총신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에프엔제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교육사업자로 참여했다. 올해는 에프엔제이와 트윅그림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뤘다. 총신대 산학협력단장인 대학부총장 손병덕 교수는 “올해 총신대는 강사 양성 교육과 콘텐츠 개발 부문으로 전체 사업의 10%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무슬림선교네트워크 ‘열무김치’ ... “실체 바로 알고 제대로 섬겨야”

최근 29가구 157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가 울산에 정착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이들의 주거 문제와 자녀 학교 배정 문제를 두고 2일 입학식 날 등교하지 못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교육청이 통역 등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학식이 있던 날 울산 지

워크의 줄임말로 2018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설악포럼에 모인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했다. 포럼에서는 지난 2일 안드레 선교사의 ‘이슬람포비아 떨쳐버리기’ 강의가 눈길을 끌었다. 이슬람포비아는 이슬람과 공포·혐오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다.

안 선교사는 “한국교회는 이슬람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들을 제대로 이해해 사랑하

야법을 따르는 우리가 바로 이슬람 원리주의자인데 대부분 무슬림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의 문화가 있는 이슬람 문화를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교회(GMS)와 성경번역선교회(GBT) 소속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다 현재 국내에서 아랍 이주민을 섬기

아프간 특별기여자 29가구 울산 정착하자

“이슬람포비아 떨치고 복음 전파” 목소리

역 교회와 선교사들은 아프간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려는 방법을 고민했다. 국내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협의체인 일명 ‘열무김치’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재송제일교회에서 부울경 지역 교회 목회자와 이슬람 선교 관심자를 대상으로 포럼을 진행했다.

열무김치는 열방에서 온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김치) 선교사 네트

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21세기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슬람포비아가 형성된 이유로 거짓 뉴스와 소문, 할랄 등 이슬람 문화에 대한 단편 생각을 꼽았다. 그는 “무슬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에게 편견은 가장 큰 장벽”이라고 했다. 안 선교사는 무슬림을 사랑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먼저 이슬람의 실체 바로 알기다. 그는 “사리

며 KWMA 난민선교 실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울산 동구 명성교회도 지난 1일 부울경 이주민선교협의회 회장이자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장인 이정기 목사를 초청해 무슬림 선교와 돌봄에 필요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교회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취업한 현대중공업과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5)

-선교지와 사역의 선택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필리핀 '선교개혁'의 길

선교사가 선교단체를 선택하는 것은 장단점을 함께하는 선택이다.

미주에 살던 나에게 한국선교단체에 대해 아는 것은 오직 KIM뿐이었다. 특히 서양 선교 리더들과 어깨를 나란히 세계 선교를 부르짖는 조동진 목사의 모습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비전과 추진력과 헌신은 범접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만나본 비서구권의 선교학자였으며 한국과 한국교회를 꿈꿨던 사랑받는 애국자 기독교인이었다.

무엇보다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태국에서 사역하다 안식년으로 들어온 김경웅 선교사 가정과 윤수길 선교사 가정과의 교제였다. 인간기가 흐르는 두 분 가정과의 만남은 나를 한국선교단체인 KIM으로 인도하였고 첫 번째 미주교회의 파송으로 선교사로 임명된 것이다. 파송단체는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질 파송교회는 없는 우리의 파송식은 조동진 목사가 시무하던 LA 빌라델피아교회에서 열렸다.

이를 위해 동부지역의 교회에서 당시 KIM 미주이사로서 섬기게된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이원상 목사, 뉴욕장로교회의 이영희 목사, 와싱턴침례교회의 김원기 목사 등이 왔고 시카고에서 중앙교회의 이영제 목사, 시카고서부교회이며 한인 세계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최일식 목사 등이 와 축하하며 파송해주었다. 이는 연약한 한국단체라는 약점도 있었지만

미주의 한인교회들이 힘을 합해 파송을 해준 장점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우리들에게 선교지의 변경이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선교단체를 먼저 정하고 이제 선교지의 선택에 대한 기로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선교단체의 안내를 따르는 순종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전적인 신뢰와 사명감이 확실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과 추진력과 헌신은 범접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만나본 비서구권의 선교학자였으며 한국과 한국교회를 꿈꿨던 사랑받는 애국자 기독교인이었다.

무엇보다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태국에서 사역하다 안식년으로 들어온 김경웅 선교사 가정과 윤수길 선교사 가정과의 교제였다. 인간기가 흐르는 두 분 가정과의 만남은 나를 한국선교단체인 KIM으로 인도하였고 첫 번째 미주교회의 파송으로 선교사로 임명된 것이다. 파송단체는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질 파송교회는 없는 우리의 파송식은 조동진 목사가 시무하던 LA 빌라델피아교회에서 열렸다.

이를 위해 동부지역의 교회에서 당시 KIM 미주이사로서 섬기게된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이원상 목사, 뉴욕장로교회의 이영희 목사, 와싱턴침례교회의 김원기 목사 등이 왔고 시카고에서 중앙교회의 이영제 목사, 시카고서부교회이며 한인 세계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최일식 목사 등이 와 축하하며 파송해주었다. 이는 연약한 한국단체라는 약점도 있었지만

미주의 한인교회들이 힘을 합해 파송을 해준 장점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우리들에게 선교지의 변경이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선교단체를 먼저 정하고 이제 선교지의 선택에 대한 기로에 놓였을 때에 우리는 선교단체의 안내를 따르는 순종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전적인 신뢰와 사명감이 확실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과 추진력과 헌신은 범접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만나본 비서구권의 선교학자였으며 한국과 한국교회를 꿈꿨던 사랑받는 애국자 기독교인이었다.

신뢰와 순종의 마음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교회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라는 선교단체의 지시에 따라 내가 꿈꾸던 '개혁선교'의 길이 아닌 '선교개혁'의 길을 나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선교지의 선택과 사역의 선택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다. 선교사들 가운데는 종종 선

교단체를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발견된다. 물론 처음부터 전적으로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모든 행적과 결과를 보면 개인의 목적을 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은 아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선발할 때에는 그 사명감을 분명히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선교사역의 선택은 개인의 은사에 맞도록 선교단체와 교회가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지의 상황은 너무나 많은

영역의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한다. 선교역사가 긴 국제선교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서 선교사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국선교단체들은 파송 받는 선교사의 의지에 따라 선교지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맞추어 나가는 경우가 많아 선교사와 선교지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신의 은사를 파악하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하여 선교지의 특성에 맞는 은사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에 선교의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특히 현재선교의 흐름상

신 특히 목사 교사에게 주신 중대한 책임이다. 이는 선교의 지상명령이 혼자서 감당하거나 한 지역교회나 한 나라의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교회와 감당해야하는 공동의 사역임을 깨닫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선교는 경쟁으로 성취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전 세계교회와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를 분별하고 함께 할 형제, 자매의 은사를 개발하도록 돕고 함께 시너지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교회는 주위의 교회들과 이런 은사들을 적극적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선교사가 현지에서 꼭 필요로 느껴지는 상황이 될 때에 선교사의 활동은 효과적이 된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사의 효과적인 개발과 동원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기 위하여 전 우주교회(세계의 모든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사를 잘 모은다면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 하나님의 사람들에 여기에서 필요한 은사를 주셨을 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은사를 찾아내고, 은사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조정하는 일들은 선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나 한사람의 은사를 개발하는 일은 개인적인 책임이지만 교회에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

이고 의도적으로 나누며 모든 세계교회와 나눌 수 있도록 섬겨야 할 것이다.

겸손한 자세로 나눔

은사의 개발과 사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로 나누어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곧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직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다. 개인이나 교회나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거나 비교하여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가며 살아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선교사

그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함께 감당하는 선교사와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나가서 불쌍한 처지에 놓인 선교사를 도와준다는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같은 종류의 선교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는 현지인들을 동역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되어 주인행세를 하며 으시대는 선교지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자세와 태도는 선교지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고, 먹이를 찾아 날아왔다 날아가는 철새를 배 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의 결과는 많은 선교사들이 한탄하는 얘기로 말하는 현지인들의 배반을 보게 된다.

그러나 자세하게 분석을 하여보면 이는 처음부터 관계가 잘못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지인들과 관계가 상업적인 관계(business contract)로 맺어진 것을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현지인들을 선교사들은 인간적인 관계(personal relationship)가 맺어진 것으로 보아서 서로 다른 길을 왔던 것이다. 바로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선교사가 재정을 어떻게 대하며 사용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친척관계에서도 흔히 나타나는데 돈을 많이 가진 친척이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친척을 도울 때에 어떤 자세로 도왔는지 그 태도가 후에 서로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처럼 교회와 선교사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는 선교사와 현지인 사이의 관계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선교사는 교회를 탓할 수 없지만 좋은 선교사는 좋은 교회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모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은 각 사람의 바른 자세와 삶이다.

dr.yongcho@gmail.com

은사를 잘 파악 개발해 선교지 특성에 맞게 이뤄질 때 선교효과 극대화 선교는 경쟁프로젝트 아닌 예수재림까지 세계교회가 협력할 공동프로젝트 '교회-선교사' 관계는 '선교사-현지인' 관계형성에 많은 영향 끼쳐

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경험은 아주 중요하다. 어떤 교회와 신앙생활 환경에서 자라나는가가 중요하다. 아주 비근한 예는 선교사의 재정사용에서 나타난다. 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선교동역이 아니라 빈민구제와 같은 정신으로 재정을 사용하게 될 때에 선교사도 그런 정신을 무의식중에 배우게 된다. 교회는 선교사와 함께 선교를 하는 것이지만 잘못 이해하여 교회가 불쌍한 선교사를 돕는다는 의식으로 선교비를 보내게 될 때에 선교사는 무의식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자원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대할 때에 자신이 받았던 태도로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신 특히 목사 교사에게 주신 중대한 책임이다. 이는 선교의 지상명령이 혼자서 감당하거나 한 지역교회나 한 나라의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교회와 감당해야하는 공동의 사역임을 깨닫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선교는 경쟁으로 성취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전 세계교회와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를 분별하고 함께 할 형제, 자매의 은사를 개발하도록 돕고 함께 시너지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교회는 주위의 교회들과 이런 은사들을 적극적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력가)

원 스토리 17강 / 광야의 음식, 전쟁, 지도자(출 16-18장)(상)

광야의 음식, 전쟁,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은 세상의 풍요와 수많은 우상의 나라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출12:41). 모세의 찬양과 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은 그들의 큰 기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출15:1-21).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400년의 시간(창15:13)이 지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출2:23-25)에 맞추어 마침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출3:4). 9번의 재앙을 통해 출애굽 전쟁을 치르시고 이미 준비되고 예고된 10번째 전쟁, '장자의 죽임'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출14:4,18,31).

우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월절'(출12:1-14) 그리고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출12:15-20)을 대대로 지키며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합니다(출12:14,17). 그리고 마침내 이 우월절 사건과 같이 진정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출세상'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전쟁을 치르시고 우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나 홍해를 건너게 하심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함이 아닌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림으로 제시된 것입니다(롬2:28,29, 3:29). 이제 여기까지는 '황금 길'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은 초반에는 모세도 흔들리고(출5:22,23, 6:12,28-30) 이스라엘 자손들도 투덜거

는 척박한 광야가 그들의 눈앞에 '푸른 초장' 대신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과 '백성' 그리고 '땅'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그 백성을 세상의

그들의 '신적 능력'을 빌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더 '왕'다운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분은 '종'이지만 마음이 '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왕권'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전쟁을 치르시고 우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나 홍해를 건너게 하심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함이 아닌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림으로 제시된 것입니다(롬2:28,29, 3:29). 이제 여기까지는 '황금 길'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은 초반에는 모세도 흔들리고(출5:22,23, 6:12,28-30) 이스라엘 자손들도 투덜거

영역인 애굽으로 보내시고 다시 그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누가 왕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왕'이 되어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번성과 풍요를 위해 수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것은 신을 사랑하거나 그 신의 영광을 위해 섬긴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준 '이름'이 높고 그들이 부여한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종'되고 백성이 '왕'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고 백성이 '백성'되며(출7:16, 8:1,20, 9:1,13, 10:3) '자녀'되고(사63:16, 64:8) '종'되고(레25:55) 자원하는 종(출21:1-6/신15:12-18)이 된 백성을 '친구' 삼아주시고(요15:14,15)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해주시는(고전3:9) 그 왕과 백성의 관계가 바로 서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전쟁을 치르시고 우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나 홍해를 건너게 하심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함이 아닌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림으로 제시된 것입니다(롬2:28,29, 3:29). 이제 여기까지는 '황금 길'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은 초반에는 모세도 흔들리고(출5:22,23, 6:12,28-30) 이스라엘 자손들도 투덜거

하나님이 '종'되고 백성이 '왕'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고 백성이 '백성'되며(출7:16, 8:1,20, 9:1,13, 10:3) '자녀'되고(사63:16, 64:8) '종'되고(레25:55) 자원하는 종(출21:1-6/신15:12-18)이 된 백성을 '친구' 삼아주시고(요15:14,15)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해주시는(고전3:9) 그 왕과 백성의 관계가 바로 서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땅'에 제한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성령과 함께 동행 하는 '의와 평강과 화락'의 나라입니다(롬14:17).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주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신8:2,3,16).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 '영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영생'이 주시려는 '복'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영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영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영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전쟁을 치르시고 우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나 홍해를 건너게 하심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함이 아닌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림으로 제시된 것입니다(롬2:28,29, 3:29). 이제 여기까지는 '황금 길'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은 초반에는 모세도 흔들리고(출5:22,23, 6:12,28-30) 이스라엘 자손들도 투덜거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거쳐 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 살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보내시려고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광야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광야는 거쳐 가는 곳입니다.

광야의 음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기 전부터 광야의 음식, 하나님의 음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릴, 하늘의 양식인 만나(출16:4,31) 반석에서 나올 물이었습니다(출17:6). 광야를 지나기까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지 광야가 아닙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은 나그네로 잠시 거쳐 가는 과정이지 우리가 머물 곳도 세상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은 평안이며(요14:27) 진정한 풍성함은 영적 가나안 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계21:1-22:5).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바로 그 곳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이 삶을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행7:38).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더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보혈로 세워지는 언약(출24:1-8)찬266장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언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청년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을 때 나온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언약서를 낭독할 때 백성에게 뿌립니다. 백성에게 뿌려진 그 제물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새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

다(눅22:20).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언약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고후5:17).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골12:1-2).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표시 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화 하나님께서 거하시실 성소(출25:1-9)찬455장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머물렀던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물과 성막 제작방법, 그리고 설계도를 주십니다. 본문은 성막의 의미와 성막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줍니다. 먼저 성막의 의미를 말씀해드립니다(출25:8).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 초월자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임마누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셔서(요2:21)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요1:14). 두 번째, 성막제작방법은 '하나님의 지시대로'입니다(출25:9).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소견에 옳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주권을 드린 성도의 삶입니다.

수 증거판을 품은 증거궤(출25:10-22)찬40장

증거궤는 언약궤(민10:33) 혹은 주 여호와와의 궤(왕상2:26)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명령할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증거궤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속

죄소는 시은좌(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도 불리는데,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씩 이곳에 들어와서 제물의 피를 뿌려 인간의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덮어줍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목 진실병이신 예수 그리스도(출25:23-30)찬154장

진실병을 두는 상은 조각목으로 길이 약 91cm, 너비 약45cm, 높이 약68cm입니다. 순금으로 만들며 네 모퉁이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달았습니다. 진실병 상에는 진실병을 항상 두어야 합니다. 진실병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었으며 소금을 쳤습니다(레2:4, 13). 이 진실병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진실해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떡이 아니라 이

라엘자손을 위한 것(레24:8)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떡입니다. 이 떡은 우리를 살리시는 '산 떡이신 예수그리스도(요6:48)'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음(영접)으로 생명을 얻고 진정한 포만(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에서 포만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금 앞을 비추게 하며(등잔대)(출25:31-40)찬502장

등잔대는 줄기를 포함한 가지가 7개로 구성되었습니다. '메노라'라는 이 등잔대는 성소입구에서 안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지성소 휘장 앞 왼편에 있어 진실병 상을 비추도록 배치되었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제사장들은 감람유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출27:20-21).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요8:12). 어둠의 한복판에 비춰진 생명의 빛이십니

다(요1:4).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a)"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내는 존재입니다. 오늘하루도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반사해내는 '빛들'로 삼시다.

토 성막을 지으라(출26:1)찬538장

출26장은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막(The tabernacle,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출25:8)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던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약400년 동안 존재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하심을 보여 주신 처소였습니다. 사면은 휘장으로 가려졌고 두꺼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출26:33). 지성소에 증거궤를 두었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히9장).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거하십니다(요1:14, 21). 즉,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듯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마2:22-23).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문화읽기 "오징어 게임과 메타버스" (하)



조희창 목사
(낮은올타리 미주본부 대표인사)

앞에 두 가지는 드라마 내용 및 구성과 관련된 요인이었다면 드라마 외적인 요인을 하나 살펴보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BTS의 열풍과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전의 한류열풍과는 다른 차원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팬덤"이라고 불리는 BTS 팬아미(ARMY)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BTS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와 콘텐츠를 긍정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BTS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 숫자(약 2,900만명)와 YouTube 'BANGTAN TV' 채널 구독자 수(약 3,600만명)는 아미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출처: 한국일보 "BTS 아미, 팬덤 넘어 국경 없는 공동체로 진화중"), 또한 이들은 한국어로 된 BTS의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며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재생산 글로벌하게 실어 나르고 확산시키고 있다.

그리고 영화 "기생충"이 2020년 2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작품, 감독, 국제영화, 각본) 상을 수상했는데 이 수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나온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이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 등에서는 자막으로 봐야하는 외국영화를 거의 보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

오징어게임 속 목표와 방법을 보면 답이 보인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왜(Why?)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를 보면 세계관을 볼 수 있다.

오징어 게임 속 456명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456억이라는 돈이다. 수단은 무엇인가? 남을 죽여 내가 사는 철저히 이기적 방법이다. 내가 살기 위해 거짓과 살인과 폭력이라는 수단이 사용된다. 드라마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살아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쁜 방법들과 수단들을 동원한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이러한 죄된 속성을 너무 잘 보여주기에 흥행했다고도 할 수 있다. 드라마에서 기훈(456)과 몇 인물들이 그나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기훈조차도 구슬치기를 하며 내가 살기 위해 오일남에게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방법을 택하

기독교인의 나쁜 이미지, 절망적 현실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하나님 동행하는 삶 통해 소망 발견,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야

데 이 기생충을 계기로 자막으로 봐야하는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를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BTS와 기생충을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 콘텐츠의 한국어 장벽 무너짐 현상은 오징어게임이 글로벌하게 소비하는데 큰 역할과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징어게임 성격적 세계관 분석과 읽기

오징어게임에는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지?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는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너무 없어서 삶이 재미가 없고, 그래서 차라리 목숨을 걸고라도 오징어게임에 참여하고,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돈 쓰는 재미가 없어서 오징어게임에 참관인 혹은 주관자 및 참여자(오일남, 001)로 참여한다. 바로 이 드라마에 흐르는 핵심적인 세계관 및 오징어게임과 이 드라마가 성립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혹 삶의 의미를 돈 쓰는 재미에 둔다면 그럴 수 있다. 돈이 중심된 삶, 하나님이 빠진 삶, 하나님을 빼놓은 삶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돈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소망을 따르는 삶은 다르다.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가?

는가? 이기적이고 죄의 방법인가? 아니면 이타적인 방법, 사랑의 방법인가?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전보다 갈수록 이기적이고 죄된 모습으로 오징어게임 속 세상처럼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 드라마는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를 보여준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크리스천 캐릭터와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들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글을 맺고자 한다.

이 드라마를 제작한 황동혁 감독은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과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러한 소망과 희망은 우리 자신만으로는, 하나님이 부재하고,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드라마가 보여주는 절망적인 현실은 어떻게 극복 가능한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진정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내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다.

woolarius@gmail.com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일기

황은숙 선교사 (엘살바도르)



“벼랑 끝, 내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

저 멀리 그리고 가까이 내 주변까지 세상이 크고 작은 재난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잘라페난고 뾰족리요스 오가는 길이 옛날 대 관령고개를 구비구비 돌 듯 구불구불 돌고 돌아 언덕을 오르내리는 위험한 길입니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현지 성도들과 함께 엘 부엔 사 마리타노 교회 성전 건축 기공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자동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위험한 사고를 겪으며 너무 놀라 후유증으로 고생 중입니다. 사고는 순간이었는데 너무나 길고 무서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입니다.

기회 새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벌써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깨닫게 하고 회개와 동시에 감사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감사와 원망이 나란히 함께 놓이는데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원망을 선택하면 지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를 회복하니 마음속 어려움이 하나 둘 치우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놀라 가슴이 아직도 쿵쿵거리고 무기력해지고 힘이 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고수습을 도와주고, 위로해주던 주민들, 자원하여 차량을 빌려주어 불편함을 덜어주던 성도님, 다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서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고, 사명자들이기에 오늘도 맡겨주신 주의 길을 두뼉두뼉 걸어가 있습니다.

선교센터 앞 에라몽, 매일 보는 풍경인데 오늘은 더 아름다운 하늘입니다. 건기로 메말라버린 황금빛 산봉우리, 혼자 보기 아까워 얼른 찰칵~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음의 먹구름이 드리워질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먹구름을 지워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기를 기다리며...

hyj0691@gmail.com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49. 부권(아버지의 권위) 회복

요즘 한인사회에서 가정불화 및 가정폭력이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과 5월의 5주 사이 한인사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은 9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한인 사망자수는 무려 14명에 달했습니다. 9건의 사망사건 중 일가족 살해사건 4건, 배우자 살해 후 자살한 사건이 2건으로 가정불화로 인한 사건이 무려 6건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윤대권씨가 두 자녀를 차에 몰아넣고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과 김상민씨가 부인과 두 자녀를 총격살해 후 자살한 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인명경시풍조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LA위클리지는 “슬픔에 휩싸인 커뮤니티(Community in Pain)”라는 기사로 한인사회의 분위기를 집중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특기할 것은 가해자 중 교회에 다녔던 남성이 3명, 아버지

사와 육아에만 전념했던 여성들이 산언화, 근대화, 민주화의 물결로 남녀평등, 여성해방, 여성상위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어 아내의 가정에 있는 시간이 감소된 반면, 남편은 근로조건 악화로 가사협력의 기회가 증가되었고 전업주부화(Mr. Mom)가 증가 추세입니다. 이 같은 부부관계와 역할의 변화는 새로운 가족관계와 가정윤리의 형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문제, 즉 청소년 문제는 핵가족화, 산업화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부모역할의 과중화에 따른 무관심, 사회전체 분위기 속에 팽배해 있는 책임의식 결여, 매스미디어의 악영향,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역할상실, 그리고 과보호와 자유방임적인 훈육태도 등으로 청소년 문제가 양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문제는 가부장적 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가정의 구조가 변모

가정의 머리(Headship)로 남자를 세우고 그에게 권위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의 머리인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었으므로 가정문제의 발생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민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남편)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아버지의 권위, 즉 부권회복에 있습니다.

부권(아버지 권위)의 회복 방안

1. 아버지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1)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자각(Comprehension)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과 솔선수범,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대화(Conversation)이다. 미국의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제대로 된 시간은 하루에 38초이며, 기타 형식적이고 사소한 시간까지 합한다면 고작 하루에 20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녕 ‘아버지 부재의 사회(Fatherless Society)’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빠, 바빠, 나빠’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바빠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화가 가정의 문제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로 세계관, 문화관, 생활관의 간격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4)결단(Decision)이다.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다면 헌신과 대화를 통하여 아버지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의지적 결심과 결단, 그리고 희생적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2. 가정 구성원간의 공동의 노력(Mutual Efforts)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자신의 노력, 즉 아버지의 자각, 헌신, 대화, 결단도 필요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의 가정구성원들 간의 공

가정 문제 해결 방안은 부권 회복... 아버지의 노력 필요 권위에 대한 자각, 헌신, 대화, 결단... 가족들도 노력해야

학교를 다니며 정신적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남성도 2명이나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같이 가정불화와 가정폭력에 의한 한인사회 가정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제기하는 것은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가정의 평화, 가정의 행복,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의 문제점이 생성된 배경

가정사역은 부부와 자녀와 노인의 3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3영역에 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가정의 구조가 크게 변모되었고,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가

하면서, 효의 근본이 흔들리고 노인의 권위가 저하되고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별로 소용이 없게 되자, 노인이 가정경제에 부담적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술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년기는 장기화되므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의 변모와 가정구성원 간의 역할변화가 동시에 발생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킨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 원인과 배경은 가정질서의 파괴와 권위의 상실에 있다고 봅니다.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최소단위인 부부(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권위에 대한 배움이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술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년기는 장기화되므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헌신(Devotion)이다.

자녀들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경건한 삶

동의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하려면, 먼저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엡5:22,24,33), 경외하며(엡5:33),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 희생적으로 사랑하고(엡5:25,28,33),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엡6:1), 공경하고(엡6:2), 아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므로(엡6:3),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때 진정한 가정의 머리가 되는 아버지의 권위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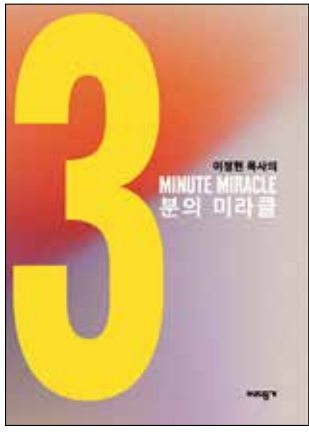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서부(CA)교회안내' an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저자 이정현 목사

“3분의 미라클(3MINUTE MIRACLE)

이정현 목사(빛과소금의교회 담임)의 저서 “3분의 미라클”이 지난 2월 출판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새벽기도회 대신 카톡으로 아침묵상을 교우들에게 보낸 것을 시작으로 1년반 전부터 “찬양과 말씀”(김삼도 목사 운영)에 올린 “3분의 미라클” 중에서 골라 정리한 것이다. 이정현 목사(본지 ‘신앙상담’ 필자)는 프로로그에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삶의 감동



적인 예화를 통해 성경진리에

접근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적용과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또한 “QT인 동시에 짧은 설교로 목회자들의 설교에도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하며 “평이한 것 같지만 깊은 묵상을 거친 것으로 말씀에 나름 깊이가 있고 통

및 신학대학원(BA, M.Div)을 졸업하고 웨이스신학대학원(STM), 풀러신학대학원(D, Min), 캘리포니아신학연구원(Ph. D)을 졸업했다. 빛과소금교회(현재), 나성서부교회 담임, 남가주주인목사회 회장을 역임 했으며 현재 미주한인에

명인 명장), 이인범 목사(올림픽중앙교회 시무역임), 정태용 집사(미조리주 외과전문의), 최동석 목사(고신, 미주탁목동 회장), 권명옥 권사(빛과소금교회), 오성에 권사(남가주한인음악협회 회장) 등이 썼다.

바탕을 둔 성경적인 메시지는 쉬우면서도 우리 삶에 지혜와 통찰력을 준다”고 평했다. 책은 제 1장 행복으로의 초대, 2장 성경으로 돌아가자, 3장 형제여, 당신의 믿음을 사 용하시오, 4장 성령님께 주도 권을 드려라, 5장 인생은 무엇인가? 해석이다, 6장 종말론적인 현상과 사명자의 길, 등으로 나눠 각 장마다 14편, 14편, 11편, 18편, 27편, 23편 등 총 107편의 짧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총 327페이지. 히스퍼기 기독교출판사. ▲연락처: T1spc0316@Gmail.com (유원정 기자)

QT인 동시에 짧은 설교...107편의 이야기 담아

찰력을 주는 영적 교훈들을 담고 있어 평신도뿐 아니라 설교자들에게도 지혜와 통찰력을 줘 설교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필자 이정현 목사는 총신대

수교장로회 총회부설 서부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추천사는 김삼도 목사(실비치 레저월드 동부평강교회 담임), 이영취 권사(한국 한복

김삼도 목사는 “찬양과 말씀” 단독방에 보내주시는 ‘3분 미라클’은 이민 생활하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요, 정서적으로 시원한 생수와 같다”며 “개혁주의 신앙에

새책소개

저자 김향안 목사

“가장 아름다운 여행 ‘죽음’ ”

한국교회정보센터를 통해 목회자들에게 수많은 자료와 저서를 제공해 오고 있는 김향안 목사(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가 최근 ‘가장 아름다운 여행, 죽음’을 출간했다. 저자는 “사람이 산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마치 해변의 모래사장에 자신의 이름을 써 놓았다가 바닷물이 한번 휩쓸어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지라도 무엇인가



를 남기고 간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본래의 출생으로부터 떨어져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죽음이란 천국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추한

남은 1년이라고 가정하고 죽음을 사랑하고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이별은 아름다운 것이다. 진정한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면 죽음은 축복의 절정

에 꼭 해 봐야 할 여행 버킷리스트, 6장-믿음의 요람 둘러보기, 7장-아름다운 가문만들기, 8장-아름다운 죽음준비, 9장-아름다운 마무리와 유산, 10장-아름다운 이별 만들기, 11장-연명치료 포기문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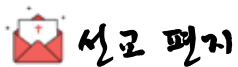
움 만들기로 집필됐다. 부록으로 ‘생명과 시간’, ‘영혼과 육체’, ‘영생과 심판’, ‘아름답게 생애를 마친 사람들’, ‘비참하게 생애를 마친 사람들’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과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아름다운 죽음의 예도 보여주고 있다. 책을 관한 것은 www.kcdc.net에서 자세히 볼 수 있고 kcdc1217@hanmail.net 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죽음은 천국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아름다운 여행’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형상이다”라고 서문에 밝히며 ‘죽음은 아름다운 여행’임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내 생애 마지막

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본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됐다. 1장-삶과 죽음, 2장-죽음의 단계, 3장-죽음의 분류, 4장-인간과 노화, 5장-죽기전

들기, 12장-아름다운 죽음을 위하여, 13장-아름다운 임종을 위하여, 14장-임종후의 할 일, 15장-아름다운 마무리인 장례, 16장-장례후의 아름다



캄보디아

시앰벨 베넬학교

살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캄보디아는 1월 10일부터 공립학교가 개학하여 전국 모든 학교가 대면수업을 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세 이상 백신 맞은 아이들만 대면수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해졌던 학교 규정이 한반에 20명 이하로 가르치되, 5세 미만, 또 백신 미접종자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와 유치원 아이들도 10일 이후 매일 등록하여 현재 3살 아이들부터 10세 아이들까지 오전에 23명, 오후에 28명이 다니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반을 3개로 나누어 4살 미만반, 4-5세, 6세 이상으로 맞추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은 선생님들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얼마나 많이 단것을 먹고 커피를 마셔야며 정신없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처음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오전, 오후로 매일 등록하고 그 아이들은 첫 학교라 무서워서 울고, 수업하러 반에 들어간다면 울고, 놀다가도 갑자기 또 울고, 대문까지 엄마 오도바이 따라 뛰어가고, 마음약한 부모님들은 교회 앞마당에서 집에도 못가시고 세 시간씩 대기하시고 하였지만 하루 이틀 지나 아이들도 적응하고 제 얼굴 보자마자 두 손 모아 “굿모닝 티쳐”도 잘하고, 신발장에 신발도 잘 벗어 넣고, 아이들끼리 재밌게 놀기도 하고, 하루하루 영어도 잘 따라오고, 캄보디아어, 노래도 무용도, 영어 책

읽기도 즐거워하며 자기들이 나서서 ‘딤딤 노래를 하자’, ‘호산나를 부르자’, ‘예수 사랑하심은 하자’ 라고 하며 노래도 부르고 잘 적응하고 있어 아주 보람되고 뿌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몇 년간 유치원으로만 있다가 이번에 베넬학교로 간판도 바꾸고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도 등록을 받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이들이 약16명가량 등록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학년마다 아이들을 나누어 가르치게 되면 좋겠지만 아직 학생 수와 교사가 준비되지 못해 이달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늘려가 4월달을 중심으로 방과후에만 머무르고 있던 초등학생들을 정식 베넬학교 학생들로 등록을 encourage하여 초등학교를 정제하고 이후 중학교까지 연결되어가길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생들과 달리 초등학생들은 첫날부터 너무나 잘 적응하고, 장난도 치고, 공부할 때 자기들끼리 봐주기도 하고, 피니스를 가르칠 때 옆에서 말해주며 도와주기도 하고, 저희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자전거도 타면서 활기 있는 코로나 이전의 학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 매일 선생님들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턴으로 근무했던 첼리 교사가 프놈펜으로 어카운팅 공부를 하러 대학을 가게 되어 그만두고, 저희 교회에 3년 동안 출석하던 고등학생2명(스레이벤, 씨나)이 이번에 졸업하고 40%의 합격률에 불과한 졸업시험도 좋은 성적으로 패스하여 저희 학교 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일주일에 6일 출근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 교회까지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에 줌으로 준비하셨던 퀴즈장로교회 VBS 팀에서 모금해주신 헌금을 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 치약치솔, 모기장, 향선연고 선물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생들 오전 오후반 아이들 모두에게도 챙겨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베넬학교가 유치원뿐 아니라 초등학교 커리큘럼

이 잘 정비되어지고 학생들도 몰려오며 좋은 교사들도 채워져 소문난 명문학교로 서갈 수 있도록 스리달부터 섬기는 저희 교회 출신 스레이벤, 씨나 교사 2명이 가르치는 기쁨을 알아가며 학생들을 사랑하고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수영 선교사 올림 cambodiabethel@gmail.com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장립 · 권사임직 감사예배!

평강교회 설립 제41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 22년 동안 충성하신 이상우 장로님의 원로장로 추대와 최기용, 임 단, 김은성 세 분의 장로 장립과 최종숙, 김현주, 민인자 세 분의 권사임직 및 임다나 권사의 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임직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 합니다.

일시 : 2022년 3월 27일 오후 1시 / 장소 : 평강교회 본당 (606 El Centro Street, South Pasadena, CA 91030)

<p>담임목사</p>  <p>이상기 목사</p>	<p>2대 담임목사</p>  <p>송금관 목사</p>	<p>원로장로추대</p>  <p>이상우 장로</p>	<p>장로장립</p>  <p>최기용 장로</p>	 <p>임 단 장로</p>	 <p>김은성 장로</p>
<p>권사임직</p>  <p>최종숙 권사</p>			<p>권사취임</p>  <p>김현주 권사</p>		
			 <p>민인자 권사</p>		
			 <p>임다나 권사</p>		

